

문화매일신문



제1510호

2023/12/28/Thu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참석해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포상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 세종 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 석해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 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포상을 직접 수 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수상자들 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 가족들 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공직사 회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의미를 더했 으며, 역대 최초로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 산"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 "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 록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 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가가 존 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책무에만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수상자 및 수상 자 가족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서울특별시 경찰청 과학수사과 이준희 경사는 "평소에 본인의 업무가 국민에게 도움이된다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해 상을받게 된 것 같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라남도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배성진 사무관 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 해 노력해 왔다"며, "현재 가족 4명 모두 지방 공무원인데, 오늘 같이 참 석한 딸도 나중에 대한민국 공무원상 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남해지방해양경 찰청 항공단 신중웅 경사의 배우자 허 정원 씨는 "남편이 일에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수상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관세청 국제 조사과 주영호 주무관의 아들 주설 현 군(2011년생)은 "대한민국 공무 원상을 수상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면서, 본인도 "우리 사회에 도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찬을 마치며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서훈을 수여하고 식사를 함께해 주셔서 공직 자와 가족들에게 큰 격려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윤석열 대

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인기 위주의 정책보다는 국가를 위해 옳은 일, 국민을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 왔다"고 강조하고,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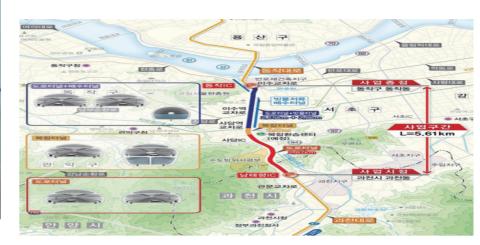
대통령은 오찬 종료 후 참석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행사장 앞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들 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오늘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가족 110여 명을 비롯해 국무위원 및 국무 회의 장차관급 배석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서울시, 26일 국내 최초 복합터널 '이수~과천' 실시협약… '30년 개통 목표

오 시장,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함께 서울 남부지역의 큰 축을 담당할 것 기대"



이수~과천 구간에 도로터널이자 빗물배수터널 기능을 하는 '국내 최초 복합터널'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2025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30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이수과천복합터 널㈜의 대표사인 롯데건설㈜과 '이수~ 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협약을 맺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현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일하 동작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 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시행 자는 롯데건설㈜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 하는 이수과천복합터널㈜로, 실시협약 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 자로 지정됐다.

이수과천복합터널(쥐)는 대표회사인 롯데건설(쥐)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 설 등 총 9개사가 출자해 설립됐다.

양측은 사업 시행과 이행 조건 등을 합의하고 실시협약서에 서명했다. 공 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6개월이며,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해 2030년 개 통을 모표로 하다

통을 목표로 한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7년 3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민자적격성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무협상 등을 완료하고, 올해 9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과천대로의 교통 정체와 사당·이수지역의 침수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기능 복합터널'로, 서울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과천동(과천대로)까지 5.61km 길이의왕복 4차로 '도로터널'과 3.3km 길이·저류용량 42만4천m³의 '빗물배수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 Build-Transfer-Operate)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고,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이 개통되면 동작구(이수교차로)와 과천시(과천대로)를 직통하는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5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빗물배수터널건설로 사당·이수 지역 저지대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수~과천 복합 터널'은 지난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동 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함께 서울 남 부지역의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 다"면서, "지하도로가 개통되면 남부지 역 교통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서울의 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24년도 해양수산분야 국가투자예산1,381억원 확보!

신규사업 10건 대거 반영, 향후 5년간 1,804억원 투입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해양수산분 야 국가투자예산 44개 사업이 반영되 어 2024년 국비 1,381억원을 확보했 다고 밝혔다.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는 포항 환동해 블루카본 인프라 조성(400억원) 경주 환동해 관상어펫 플라자 건립(202억 원), 영덕 백석-고래불지구 연안정비사 업(280억원) 등 10개 사업이 반영됐으 며, 2024년 1차년도 예산을 포함해 향 후 총사업비 1,804억원이 추가로 투입 될 예정이다.

이는 해양수산분야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이경곤 해양수산국 장을 비롯한 과장 및 실무진들이 수시로 해수부·기재부 및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전방위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친결과다.

이외에도,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주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490억원, 영덕 스마트 수산가공단지 조성 380억원이 기확보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은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로 내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문화공간 조성하고, 수산물의 스마트가공 인프라 조성을 통 한 고부가가치화로 수출경쟁력 강화와 청장년 창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 업 2개 유형 19개소, 1,227억원을 공 모 신청하여 현장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중 공모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 어, 어촌지역 특화개발을 통한 생활·경 제 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경북 미래 수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해양수산 발전방안 모색과 해양수산 역점사업 발굴 및 부처·기재부 건의 자료 활용 등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경 북도 해양수산분야 미래 성장동력 마련 을 위해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 였다"면서, "확보된 국비사업의 면밀한 추진과 지속적인 국비 건의 활동을 통 해 환동해를 이끌어가는 경북 동해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11



고향사랑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전액, 10만원 초과 : 16.5%)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엑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서석영 경북도의원,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포항 지역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인정 받아

서석영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포항6,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 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 중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헌 신적으로 기여해 온 의원에게 수여하 는 상이다.

제12대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 작한 서석영 의원은 35년간 포항시 에서의 공직생활로 쌓은 경륜으로 소 속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비 롯하여, 윤리특위, 지방분권추진특위 위원으로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횔 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 장을 역임하며 사전에 민생 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자료를 철저히 분석한 뒤 이를 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할 수 있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류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등 올해에만 6건의 조례안을 대 표 발의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아울러, 지난 제340회 제1차 정례 회 도정질문에선 경북형 기후변화 대 응계획 수립과 재해복구시스템 전면 개선을 촉구했고, 선제적 홍수 대응 과 근본적 피해 예방을 위해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와 포항 항사댐 조기 착공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포항시민 들과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과 정책발굴에 한발 앞선 행보를 보여왔다.

서석영 의원은 "너무도 뜻깊은 상 을 받아 영광스럽다. 더욱 잘 하라고 주신 큰 상이라 생각하겠다"며, "앞 으로도 지역단체 및 주민들과 소통하 며, 더욱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차영수 전남도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임 시에 이어 두 번째 최우수상 수상



차영수 전남도의원(의회운영위원 장, 강진)이 '2023 대한민국 지방자 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 상했다.

차 의원은 12월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상식 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임 시 수상에 이은 개인 두 번째 수상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주최로 지 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등 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지방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정책 및

우수의원에 대해 수여하는 상이다. 차 의원은 제11대, 제12대 전남도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인 의 정활동으로 선거공약을 충실히 이행 해 온 점이 수상의 사유로 꼽혔다.

또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대 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지방의 현안 과제 해 결에 앞장서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 위원장은 "영예로운 의정정책 대상을 두 차례나 수상하게 되어 영 광스럽고 감사드린다"며, "정치를 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 동을 펼쳐 더 살기 좋기 전남을 만드 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 을 밝혔다.

박종배/기자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의정 성과 대구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최선

시정질문·5분발언 109건, 행정사무감사 496건 시정·건의, 688건 민원 접수·처리

대구광역시의회는 2023년 한 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 의회'의 슬로건 아래 대구의 대도약 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며 현장 중심 의 의정 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쳤다.

지난 4월 제300회기를 맞이한 대 구시의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행동 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굳은 다 짐을 했다. 또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을 완성하고 7월 군위군 편입으 로 소속 의원이 1명 늘어 33명으로 재편성하여 도약하는 대구를 위해 더 욱 분발할 체제를 갖추었다.

동안 30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 다. 조례안의 경우 총 183건의 처리 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은 83건으 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을 제시한 시정질문은 17명의 의원 이 13회에 걸쳐 31건을 실시했다. 5분 자유발언은 14회에 걸쳐 30명 의 의원이 78건의 시정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분야별 로는 일반행정, 교통, 산업경제 부문 순으로 집중 질의 및 발언이 이어졌 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은 제8대 동 기간(24명 67건) 대비 발언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대구시의회는 제9대 의회 들어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번 감사에서는 감사 대상기관을 69 개로 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496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철저 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의회 사무처 인사권독립 이후 한층 날카로 운 질의와 지적으로 집행부를 긴장시 켰다. 또한 감사에 앞서 시민들로부 터 제보사항 35건을 접수하여 감사 에 참고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내당네 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등 688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했으 며 이는 제8대 동기간의 116건에 비 해 493%가 증가한 수치이다

대구시의회는 민생을 보살피는 현 장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민생현장탐방'을 추진(4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 요 현안사업 현장(53개소)을 지속적 으로 점검했다. 또한, 분야별로 주요 현안 간담회·토론회(83회)와 의원 2023년 대구시의회는 총 8회기 1일교사(의원 4명, 5개교 291명), 청소년 모의의회(11회 210명) 등을 을 펼치고자 노력하는 한해였다.

>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의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 의정교 류에 힘쓰는 한편, 전문가들과 함께 시정현안을 논의하는 의정자문위원 회 운영 활성화(5회 운영, 24개 분 야 61명 위촉)에도 힘썼다

> 활발한 의정교류로 의회 위상을 제 고에 노력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협의체를 통해 지방현안 해결에 머리 를 맞대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화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 실 국비지원 건의', '전기차 보급확대 를 위한 대중교통차량 특례지원 건의 안' 등 정부 건의안 11건을 발의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데 힘

현안 공유 지자체 의회 및 특 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했다. 대 구와 광주는 달빛철도의 조기 건 설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협약('23.4.17)을 통 해 함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 담회('23.9.14.) 및 맑은물특위 는 안동시의회 및 안동시와 간담회 ('23.12.18.)를 통해 대구경북 공통 의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

동 노력에도 눈에 띄었다. 대구시의 회 자생 연구단체(5개 단체)는 대구 시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활동을 펼쳤 다. 또한 정책연구위원회 및 용역심 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 한 정책과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 발 굴·연구에 매진했다

대구시의회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광역의회 최 초로 의원 구속기소 상태에서 월중수 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대구광역시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의원 겸직현황 및 업 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과 맑은 물공급추진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6회), 성명서 발표 및 현장방문(3회) 등 사업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8 회에 걸쳐 예산안과 결산안, 추경 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펼쳤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구 시 예산 10조 5,864억원과 시 교육 청 예산 4조 851억원을 심사·의결 음으로 대구시 예산규모가 줄었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 및 복지 분야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살 피고 예산안을 조정했다.

이만규 의장은 "2023년은 대구 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 군위군 대 구 편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우 리 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이 큰 보람이었다"고 소회를 밝히 고, "2024년에는 팍팍한 시민의 삶 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생경 제 회복과 새로운 대구 대도약을 위 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 히 뛰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2023 시군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의 우수의원 수상!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 힘, 안양1·3·4·5·9동)은 지난 26 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3층) 에서 열린 '2023년 시·군의회 의 정대상 시상식'의 '의정활동개선 분 안았다.

시상식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 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31개 시· 군·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사 회에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활동 공 동체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의원은 제9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과 제289회 안양시의회 제2 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으로 활동하며 안양시민의 복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과 안양시의 재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노력을 해 왔다.

또, 시민이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 기 위해 안양시 및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5분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 사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안 양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및 어려운 경 제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을 지 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 활동을 전개



해 왔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사업 의 투명성과 올바른 예산 집행 여부 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중 의원은 "우수의원대상을 수상해 무척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 로는 더욱 잘하라는 시민 여러분 의 격려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 며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들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신우용/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2023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송년의 밤』 및 『제21회 대한노인회 업무성과 보고회 』참석 및 유공자 격려

장애인도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얻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에 관심 당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 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12월 21일 오후 4시 이룸웨딩컨벤션 4층 사랑채(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 회)에서 진행된 『2023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송년의 밤』에 참석하여 장애인직업재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종 사자, 후원자 및 시설 이용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서울시 의장상 표창자에게 수 상을 했다.

2023년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 설 송년의 밤 행사는 서울시장애인직업 재활시설협회(회장 김영환)의 주관으 로 1부에서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 최종태 회장, 서울시복지재단 김 상철 대표이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 협회 심정원 회장, 한성유엘산업(주) 이경수 대표가 참석하여 축하를 전하 고,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유공자 31명 에게 포상 전달을 진행했다. 2부에서 는 홍보대사 강은탁 배우가 함께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와 참석자 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지난 일 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현장에서 힘써 준 종사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서울특별시의회 도 장애인들이 본인이 선택한 일을 통 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 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

이어 12월 22일 오전 10시 케이터 틀 컨벤션홀(마포구 백범로 23)에서 진행된 『2023년 제21회 대한노인회 업무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스마트 경로당 조성 등에 힘 쓴 업무성과 유공자 에 대해 축하를 전 하며, 관계자와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2023년 제21회 대한노인회 업무성

과보고회는 (사)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 회(회장 고광선)에서 주최·주관하여 서 울시연합회 임직원 및 25개 지회와 사 회공헌클럽코치 및 자원봉사 어르신, 경 로당복지파트너, 노인 일자리 참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대한노인회에서는 서울 어르신의 권 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를 위하여 고령사회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드린다"라며, "서 울시의회에서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어 르신들이 삶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힘 쓰겠다"라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무:대선 (112) 사 회 부:내선 (113) 경 제 부:대선 (114) 스포츠부:대선 (115)

부동산부 :내선 (117) 오피니언부 :내선 (118)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부천 삼정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

미세먼지 저감, 자연학습 공간 조 성을 위해 '울타리 및 학교숲' 조 성사업을 추진했으며, 노후된 담장

400m(미터)와 학교 내 유휴지 1 천100m²(제곱미터)에 생태공간 휴게공간, 학습공간 등을 조성하면 서 황진희 의원은 해당 지역 도의 원으로서 각종 예산지원 을 아끼지 않았다.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지역 상을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삼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무엇보다 로 경기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상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누리과정 지원 위한 어린이집보육료 209억 증액 환영

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 회에서 최종 의결된 '누리과정지원 을 위한 어린이집보육료 만 5세 추 가지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예산

한 예결위 심의에서 유보통합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해 "급식비는 선도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만 5세에 대해서는 학부모

앞서 최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비 유아급간식비 1인당 45,730원 을 기준으로 12개월 총 67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교육청 예산을 확



는 등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 여, 영아 1인당 26,010원 기준 급간

는 2024년 6월 8일 이후 지원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2024년 1월부터 영아 운영비 지원 보했다.

이는 0세부터 2세 영아 운영비 지 원으로 현원 기준 40명 미만인 경 우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

최 의원은 "'누리과정지원을 위한 어린이집보육료 만 5세 추가지원'에 대한 209억원 증액 결정에 환영 입 장"이라며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증 액 편성에 주도적인 견인차 역할을

교육청이 앞으로도 선도교육청이라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며 도청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유치원과 어린이 집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재원 근거 마련

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 성 및 운용 조례안'이 21일 372회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치하여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조례의 목적과 용도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 존속기한 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이 경기도내

련이 될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어 재량과 유연성을

그리고, 지난 11월 9일, 경기도지 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경 하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 원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김범상/기자

다 같이 나누는 가치를 문화예술교육으로 만나다. 경기상상캠퍼스 '다(多)가치 상상' 성료

경기도 내 문화취약계층 지역 기관 연계 교육 경기상상캠퍼스 '다(多)가치 상상' 성료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는 문 화취약계층 지역 기관 연계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다(多)가치 상상'(이 하 '다가치 상상')의 운영을 마무리했 16개 경기도 내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다.

'다가치 상상'은 문화예술교육 기회 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 내 지역 기관 을 연계하여 경기상상캠퍼스와 지역 여 경기상상캠퍼스의 자산인 '숲과 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16개 지역 기관과

이 참여했다.

지역 기관: 고양시 덕양행신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구세군장애인주간보 호시설, 김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루우물작은도서관, 문화더함공간 서로, 벌터온, 서호노인복지관, 수원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장애 인가족지원센터, 수원시 여성문화공 간 휴, 수원여성회, 수봉재활원, 시 흥시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아름학교, 진행하는 '마음을 그리는 숲', 숲속 동물들의 의상을 입고 뮤지컬 넘버



을 거쳐 숲이 되는 과정을 오감으로 모셔오기도, 지역 기관으로 교육 단 체들이 찾아가기도 하며 참여자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있는 기회를 선

참여자 및 지역 기관 담당자는 "평 상상'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향후 다."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2024 새해맞이 기자회견 개최

2024년을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하는 K-EDU의 원년으로 만들 것

경북교육청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27일, 본청 웅비관에서 100여 명 의 출입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세계교 육 표준을 창출하는 K-EDU의 원년'('대 한민국 경북교육의 원년')이라는 주제로 '2024 경북교육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새해맞이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은 2023년 경북교육을 되돌아 보고, 2024년 경북교육의 핵심 가치, 전략,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한 다음, 출입기자단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

임종식 교육감은 2023년을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하 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평가하 고 △디지털 대전환 기반 구축 △체육. 직업 교육으로 경북교육의 우수성 입증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인성 교육 △따뜻한 맞춤형 복지 확대 △기 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아울러, 2024년을'성장, 조화, 미래' 를 핵심 가치로 하고 '제일 먼저 새롭 게, 보다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 자!'라는 전략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 표준, K-EDU의 원년으로 만 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삶이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주도성 신장 △힘이 되는 미래 교육으로 미래를 변혁하는 주체 △따

뜻함을 더하는 학교에서 모두의 완전한 포용을 실천 △혁신하는 교육지원으로 자생력 있는 학교 등 네 가지의 2024 경북교육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2024 경북교육의 첫 번째 핵심 가

치는 학습자 주도성을 통한'성장'이다.

미래를 열어갈 아이들이 지녀야 할 삶의 힘은 바로 주도성으로 이러한 주 도성을 키우기 위해 학습에 집중하는 한편, 출발점을 질문으로 하여 수업 대 화의 힘을 키우고 학교별 질문대회를 확산하는 등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만 들어 가겠다고 한다.

또한, 초대규모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앱을 개발하여 디지털 지식 마루 를 구축하여 학습 이력을 디지털 배지 로 관리하는 한편, 11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을 2025년에 서비스 운영 후 2027년 에 완성하여 구현될 예정으로 학생 생 성 교육과정과 개념 기반 수업을 통해 학생 주도형 수업을 완성해 나간다.

로 만들기 위한 교과 중점학교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두 번째 핵심 가치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조화'이다.

먼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학 생 정신건강 위기관리 전담팀 운영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바로 지원 365

신속대응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선생님께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 운영과 교원 배 상책임보험 보장을 확대한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해 규 제를 낮추고 창의와 실험을 높여 미래 교육지구를 12개 시군으로 확대해 지 역별 교육공동체를 굳건하게 한다.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세계이자 '미래'이다.

이를 통해 세계교육의 표준을 제시하 여 K-EDU의 K를 경북교육으로 만들 어 가겠다고 한다.

경북교육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대한 민국을 넘어 세계교육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비롯한 4개국 48명 의 해외 우수 유학생이 경북의 직업계 고에 입학을 확정하고 자율형사립고인 김천고에도 입학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과테말라에 18년간 지원해 온 정보화 지원 사업을 에티오피아로 확대하는 한편, 필리핀, 하와이 등의 나 또, 소규모 중학교를 찾아오는 학교 라에서 경북교육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 고 있다.

> 또한, 제1회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를 전남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며, 도농 이음교실과 영호남 공동 수업, 공립 온 라인 학교 설립으로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학생 해외봉사활동으로 배움의 주문드려 본다.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 구성원 모두와 함께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 라며 "2024년을 학습자의 주도성 을 키우고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회복 에 힘써 경북교육을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하는 'K-EDU의 원년('대한민국 경북교육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 고 말했다.

이어진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에 서 임종식 교육감은 기자분들의 어려 운 질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평소 소신을 밝히면서 혼쾌하게 답변 해 역시 임종식 교육감이란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경북교육은 'K-EDU의 원 년('대한민국 경북교육의 원년')의 해 에 『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 루어 가장 널리 누리는 전략』으로 세 계표준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 2024 년 경북교육은 24시간 쉼없이 아이 들과 학교를 살피고 챙겨서 교육혁신 의 페이지를 또 한 장 넘기는 각오로 교육청, 학고, 학부모, 학생,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힘 을 모아 삶의 힘을 키우는 2024 갑 진년 새해 따뜻한 경북교육이 보다 힘 찬 새장을 활짝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윤근수/기자



의정부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개정 알림



의정부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시민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 기술 빌 전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 했을 때 과도한 검사 주기가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 단,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완화한 내 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된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경우, 최초 검사와 차기 검 사 주기를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는 당초 차령이 3년 초과인 차량인 경우에만 1년 주기로 정기 검사가 진 행됐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에 따 라 앞으로 차령 4년 이하는 2년 주 기로, 4년 초과하면 1년 주기로 검사 가 실시된다.

아울러 신규 검사를 받은 자동차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중 전장 5.5m 미만의 비사업용 중

형 승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 이 2년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 존 3년 초과 8년 이하일 경우에만 1 년 주기로 자동차 검사가 이뤄졌지 만, 앞으로는 차령이 8년 이하인 경 우에만 1년 주기로 시행될 예정이다. 6개월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 화된 검사 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 사업용 대형 승합차도 검사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다. 당초 차령 5년 초 과부터 6개월마다 받는 검사 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받는 것으로 완화했다.

시 자동차관리과는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을 자동차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종합) 검사 과태료 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내 주요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 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시 홈페 이지·관내 엘리베이터TV에 관련 내 용을 송출하고, 홍보물품을 배포하는 등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차주의 정기(종합) 검사 주기와 관련해 자동 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시 어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건전한 교통문화

최만식/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2024년, 시민과 군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의정활동 펼쳐 주기를…"

26일, 제13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경기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경 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 기초의원 및 직원 112명에게 시상했다.

이번 의정대상은 모범적인 의정활 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 정되는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했 으며, 시상은 ▲주민참여소통 분야, ▲지역현안해결 분야, ▲의정활동 정활동개선 분야, ▲행정감사 분야, ▲예산절감 분야, ▲의정연구발전 분야, ▲의정봉사 분야 ▲의정활동 지원 분야 등 12개 분야로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상자로는 국미 순 의원, 김소진 의원, 김정렬 의원,

박현수 의원, 배지환 의원, 이대선 의원, 정종윤 의원 등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개 회사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지 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렇게 표 창패를 받게 된 수상자 여러분께 축 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갑진년에는 더 힘찬 다짐으로 시민 과 군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또한 "저 역시 내년에도 협의회 회장으로서, 31개 시·군의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한편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직 을 역임하면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환경 분야 유공 시민 40명에 표창장 수여

이상일 시장,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강조

용인특례시는 26일 문화예술원 국 제회의실에서 환경 분야 유공 시민 40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생태계 보전, 환경교육, 수질 보호, 환 경미화(공무직, 민간대행), 재활용가 능자원 회수 선별 등 7개 분야의 유공

이들은 올 한해 시의 지속 가능한 발 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시를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환 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이후 올해 수지환 경교육센터를 개소했고 내년에는 용인 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된다"며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으로서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해 개발이 불가피한데 환경과 조화 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남시, 2023년 인구정책 토론회서 모든 세대 행복한 공존 방향 모색



하남시는 22일 시청 본관 대회의 실에서 '2023년 인구정책 토론회' 를 열고 모든 세대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 비전을 모색했다.

2023년 인구정책 토론회는 '함께 라서 행복한 하남'을 주제로 김교흥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하남시 부시 장), 실무추진단 및 관계 공무원, 시 민단체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이혁진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는 '하남시 인구정책이 나아갈 방향' 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학과를 졸 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사회학 박 사를 취득한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가 로,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을 역임한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분야별 토론회에는 △ (청년정책) 손진희 숭실사이버대 교 수 '하남시 청년문화·주거 여건 조성 등 청년의 관내 정착 방안' △(보육 정책) 문병용 하남가족센터장 '아동 돌봄 공공성 확보를 통해 아이 양육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년정책) 김은미 교수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 (출산정책)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고령 임산부 증가와 이에 따른 맞춤 형 지원정책 수립'등 수준 높은 주 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 주제발표 후 발표자와 청중 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 을 갖는 '플로어 토론'이 진행되며 사 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인구

전략에 대한 다채로운 정책 의견들이 제시됐다.

토론회 좌장인 최진호 아주대 명예 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하남시가 모 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미래 를 설계하고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하 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토론회에 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이 하남시정 에 반영돼 인구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교흥 하남시인구정책위원회 위 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분 들이 제안한 대안과 시민분들의 다 양한 의견들을 2024년 하남시 인 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추 진단을 본격적으로 운영, 종합계획 로 '경제 허리'인 청년세대의 일자리 및 재정안정 지원정책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펼 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하남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 째 이상 최대 200만원 → 2천만원)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산후조 리비 지역화폐 50만원 → 지역화폐 50만원 + 현금 50만원) △출산 준 비 교실 운영 △임신성 당뇨검사 △ 산후 건강 관리 소모품 지원 △영유 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등 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사)우리글진흥원 주관 '2023년 공공문장 바로 쓰기 자치단체상' 대상 수상

바르고 쉽고 품위 있는 공공문장을 일선 행정에 구현해 모범을 보인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노력 인정받아



관 '2023년 공공문장 바로 쓰기 자치 단체상'에서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했

'공공문장 바로쓰기 자치단체 대상' 은 우리글진흥원이 바르고 품위 있는 공공문장을 일선 행정에 구현해 우리 사회의 소통 촉진에 모범을 보인 지방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노력을 응원하 고자 시상하는 상이다.

시는 금년 공공문장 바로쓰기, 어문

규범, 보고서 제대로 쓰기 등 관련 교 육을 통해 소속 공직자들의 국어 능력 향상에 모범을 보인 공적을 인정받아 교육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대도시 로의 도약을 맞이해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와 전문 인력 육 성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 이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 롯한 다양한 분야의 직원 교육에 박차 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 부가 공동 주관한 '2023년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에서 공공부 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훈 련을 통한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육성 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시현/기자

광명시,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07% 달성

광명시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시는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 서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만 4천24건 대비 107%인 1만 4천998건을 달성했다

시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 고 설명했다.

2023년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야 별로 살펴보면, 우선 임금을 지원하 는 직접 일자리 실적은 올해 목표 5천 570명보다 206명 초과한 5천776 명을 기록했다.

시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주민자치 매니 저, 행복마을지킴이, 체납관리단 등 39개 사업을 추진했다.

직업능력 훈련 분야는 올해 목표의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청 년 구직자 및 기업 수요에 맞춤형 취 업연계 직업교육훈련, 계층별 취업역 량 강화 교육,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 정 운영, 장애인 평생 학습 강사 양성,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교육 등 17개 직업능력훈련 사업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상담, 취업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여성 재취업 연계 등 5개 고용서비스 사업을 통해 5천 785건의 지원 성과를 거두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자금 지원, 디딤돌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에코 말했다.

디자인 창업자 발굴 등 창업지원 분 야 7개 사업 206건, 고용장려금 지 원 16건,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고용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 등 고용 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 분야 36개 사 업 160건의 실적을 거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일자리 창출 은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분야"라며 "2024년에도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 고 안정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고 있다.

광명시, 올해 일자리 목표 1만 4천24건 대비

107% 1만 4천998건 창출

시는 2024년 3월 개관하는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해 신중 년 구직자 재취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6월 광명산업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와 신도시 조성을 통해 유망기업 유치 와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보에도 탄력 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양 성 체계 고도화 ▲청년·여성 등 취업· 창업 지원 강화 ▲광명형 미래산업 일 자리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적 경제 자립 기반 마련 ▲ESG 경영 선 도 및 확산 ▲일자리 거버넌스 및 고 용 안전망 공고화 등 6대 전략을 세우 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및 신도시 미래산업 거점 육성, ESG 기반 창업 활성화 등 10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

윤용민/기자



"더 큰 경주!더 나은 미래"

액사를뫒되시 미래를 밝는 7경주

역사문화관광도시 넘어 첨단도시로 도약하는 경주시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을 서로 연결 해 물을 대면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뜻의 이택상주(麗澤相注)의 마음으 로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주시가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넘어 꾸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2018년 취임 이 후5년 간 경주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새로운 경주를 바라는 시민들 의 기대감은 크다. 3년을 끌어온 팬데 믹과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전쟁으로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

서도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경

▲ 먼저 신성장 동력 산업에 모든 역

경<mark>주시는 정</mark>부 내년도 예산 심의에

서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신성장 동

력 산업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는 계획이다. 먼저 미래 꿈의 에너지

인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를

위해 지난2021년 착공한 문무대왕과

또 올해3월 정부가 신규 국가산단 공모에 경주가 선정되면서2030년까

지 전 세계 원전시장을 공략할150만 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학연구소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주시의 복안을 직접 들어봤다.

량을 집중할 때이다.

m²규모의SMR국가산업단지가 경주 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들어서게 됐다.

현재 국가산단은 전국47곳으로 경 북은 구미6곳,포항2곳,경주1곳(월성 원전)등9곳인 것을 감안하면,경주시 는 제조업 분야 첫 국가산단 유치라는

SMR국가산단 조성사업은 국내소 형모듈원전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 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한 특화사업 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하기 위한 민선8기 경주시의 핵심 전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9일, 경주

시 양남면 나산리 일원에서 첫 삽을

뜬 '중수로해체 기술원'역시 경주의 백 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가 될 전

▲다음으로 첨단 에너지 산업 도시

'작은 부품 묶음 원자로'라는 그 뜻

그대로 SMR은 출력300MW급 이하

의 소형원자로로 안전성이 높고 설계

와 제작이 매우 간소한 원자로다. 현

재 세계20여 국가가 71종의 SMR을

개발 중이며,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

는 향후, SMR시장규모가 620조원

망이다.

로 도약한'경주'이다.

세계 패권을 거머쥔 미국도 정부 주 도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2050탄소중립의 핵심전략으로 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 정부도 SMR독자개발 등 원전기술 확 보를 위한 대규모 R&D사업 투자를 공언하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주가 있다.

경주는 6기의 원전과 한국수력원자 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 사성폐기물처분장이 있어 원전산업의 최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지난해 7월 감포읍 일원에 SMR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 연구소가 착공에 들어가 조성 공사 가 한창이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 립사업은 국비 2700억 원 등 모두 6540억 원을 투입해, 1145만m² 부 지에 연구시설

오는 2025년 문무대왕과학 연구소가 완공되면 연구 인력만 500~1000여 명으로 소형 모듈 원 자로(SMR)연구개발 등 원전 고도화 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경주시는 차세대 원자력 연구 의 중추적 역할을 할 문무대왕과학연 구소 착공을 계기로 경주를 중심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특화단지를 조성하 고 서울대 원자력연구소 유치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원자력산업 주도할'경주 SMR국가산단'이다.

정부는 올해 3월 경주시 문무대왕 면을 미래 원자력산업을 주도할 SMR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확정했 다. SMR혁신원자력 국가산단은 문무 대왕면 동경주 IC 인근 150만m²(46 만 평)에 2030년까지 39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된다.

이에 따라 경주 문무대왕면 일원엔 세계 원전시장을 공략할 150만m² 규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경주시의 구상이다.

SMR은 쇄빙선·선박 등 해양용과 우주용 전력 에너지원으로 응용 가능 해 2035년에 세계 시장이 63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현장 설치로 비용이 적게 들고 대형 원전과 비교해 안전성도 높은 편이다.

SMR국가산단에는 원자력·전력,원 전해체,연구개발서비스 등 핵심23개 업종과 그린에너지, 소재부품, 전기설

비 등 29개 연관업종이 입주할 전망

경주시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에 앞서 SMR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한'SMR국가산단 경주 지정 시 입주 의향'등을 물은 조사를 보면, 국내 주 요 대기업을 포함한 225개 기업에서 275만m²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집계

이는 예정 시설용지(97만m²)대비 283%에 해당하는 것으로, SMR국 가산단에 기업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 인다는 방증이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SMR부품 인허 가기관 설립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전 추진, 장기 임대 등 미분 양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처 럼 경주시는 SMR국가산단 유치 타당성 조사에 나서며 미래에너지 산업 중심도시로 서의 비상을 서두르고 있다.

▲원전 해체 컨트롤타워가 될'중수로해체기술원'경주서 첫삽뜨다

원전 해체 기술 고도화 사용화 종합 컨트롤타워가 될'중수로해체기술원'이 지 난19일 경주에서 첫 삽을

원전 해체기술개발의 전초 기지가 될 이 시설은 경주시 를 비롯, 경북도,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산업부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723억원을 들여 2만9487m² 부지 에 방사화학분석동, Mock-up시험 동, 사무연구동 등이 들어선다.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완공되면 원전 해체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기 술을 실검증 시설 및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원전해체 기술에 요구되는 전 문인력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실증 공

이밖에도 해체 사업 관련 폐기물 분 석 인프라 구축 및 분석사업을 통해 해체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인 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SMR국가산단, 문 무대왕과학연구소, 중수로해체기술원 이 조성 후 본격가동 하면 경주는 물 론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 른바 에너지 산업 중추기지로의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타용/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에 역대 최다인 국비 9조 755억 원을 확보해 사상 첫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26일 바였다.

2024년에 확보한 국고예산은 2023년 8조 6천525억 원과 비교해 4천230억 원(4.9%)이 증가했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조 6천21억 원과 대비해서도 국회 심사단계에서 4천73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궈낸 매우 뜻깊은 결과다. 2018년에 국비가 6조 원에 불과했던 것과비교해서도 몇 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국비 확보 9조 원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국고 확 보를 위한 단계별 전략에 따라 연초부터 수차례에 걸친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비롯해 매월 국고 상황 보고회, 중앙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끊임없이 개최하면서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

전남의 잠재력과 강점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미 래 첨단전략산업과 차세대 에너지 분 야의 핵심사업을 다수 확보해 전남 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남권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동부권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중부권의 광주·전남 첨단의 료복합단지 등 권역별로 경제 활성화 를 이끌 신규 사업들도 110건에 1천 612억 원(총사업비 3조 5천억 원 규 모)으로, 2년 연속 100건 넘는 신규 사업을 확보해 성장동력을 꾸준히 이 어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남이 강점을 보유한 우주, 바이오, 전기차 등 첨단산업 기반(인

전남도, 국고 확보 9조 원 시대 개막

2023년 대비 4천230억 원 증가…9조 755억 원 확보

프라)을 활용해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반영 돼 글로벌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 지 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순 백신산업 특구 등 광주·전남의 바이오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첨단바이오 신약에 특화된 글로벌 강소형 첨단의료복합단지추가 지정을 위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비 5억 원(총사업비 미정, 화순)과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건설 타당성 조사비 3억 3천만 원(총사업비 1천1억 원, 장성)이다

또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해 민간이 개발한 다양한 발사체를 원스톱으로 시험·운용 할 수 있도록 기반(인프라)을 구축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설계비 20억 원(총사업비 2천23억 원, 고흥), 영광 대마산단에 입주한 이(E)-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초소형 전기차 수출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초소형 전기차플랫폼 수요연계형 부품 기술 연구개발비 10억 원(총사업비 150억 원, 영암) 등이 반영됐다.

전남이 미래 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며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도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 석유화학산 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 하고 있는 여수 국가 산단의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여수 국가산단 탄소포집활용저장 (CCUS)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 비 5억 원(총사업비 미정), 한전공대 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한국에너지공 과대학교 정부 출연금 200억 원(총



사업비 1천억 원, 나주)이다.

아울러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비 4억 원(총 사업비 450억 원, 해남) ▲미래 지역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플랫폼 구축비 30억 원(총사업비 300억 원, 도내)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타당 성 조사비 2억 원(총사업비 450억 원, 나주) 등도 반영됐다.

전남도의 농어업을 디지털·스마트 수출 산업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예산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모여 최첨단 디지털 농업기술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낼 세계적 수준의 농생명밸리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타당성 조사비 3억 원(총사업비 1조 3천105억 원, 무안)과 남도의 우수한 식자재를 활용한 남도 향토 음

식의 체계적인 발굴·보존 및 세계화를 위한 ▲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 설계비 5억 5천만 원(총사업비 105억원, 목포)이다.

또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구축 타당성 조사비 2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완도) ▲친환경 복합서비 스 지원단지 조성 설계비 3억 원(총사 업비 180억 원, 해남) 등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남해안권 관광·문화 중심지로 도약시켜 전 세계 유명 관광지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단계 사업으로 나주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6억원(총 176억원), 여수 뷰티·스파웰니스 관광 거점화 5억원(총 213억원) 등 33개 사업예산 111억원(총사업비 5천621억원, 도내)이지역별로 골고루 반영됐다.

그간 발굴과 보존이 미흡했던 마한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역사문화 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설계비 9억 원 (총사업비 243억 원, 나주·해남)과 2026년에 개최 예정인 세계 섬 박람 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세계 섬 박람회 개최 사업비 8억 6천만 원(총 사업비 248억 원, 여수)도 확보했다.

호남지역 민속연구 활성화 및 역사 자원 보존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분 원 건립 타당성 조사비 2억 원(총사 업비 465억 원, 순천)을 비롯해 순 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시설비 193억 원(총사업비 390억 원, 순천) 등도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조 572억 원에서 14.4%가 증액된 1조 2천93억 원이 반영되며 지역 숙원인 광역교통망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호남 고속철도 2 단계 공사비 4천840억 원(총사업비 2조 6천921억 원)이 반영돼 2025 년 준공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의 50% 이상을 확보했다.

중장거리 노선 비행기가 취항가 능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100억 원(총사업비 492억 원)도 호남고속 철도 2단계 준공에 발맞춰 충분히 반영돼 무안공항이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있게 됐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공사비 2천56억 원(총사업비 1조 7천811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 공사비 1천54억 원(총사업비 5천365억원) ▲여수 화태~백야 도로 공사비 685억원(총사업비 5천319억원) ▲벌교~순천 주암 국도 27호선확장 공사비 378억원(총사업비 1천711억원) 등도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계획대로 완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다

이 외에 전남도의 교통지도를 새롭게 그려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신규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반영됐다. 특히 서남권 경제·관광 발전의 획기적계기가 될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용역비 3억 원(총사업비 미정)이 국회단계에서 반영됐다. 호남의 관문이자얼굴인 목포역 노후 역사 개축사업 설계비 1억 원(총사업비 490억 원)도 20여 년 만에 반영됐다.

전남을 하나로 묶는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총사업비 1조 5천192억 원)와 ▲광 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총사업비 1 조 5천965억 원) 사업도 올해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더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거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안전, 교육 체육 시설 관련 사업 등 도민을 위한 다양 한 분야의 행정·안전 예산도 반영됐 다

주요 사업으로는 ▲(순천)순천대 글로컬대학30 사업비 100억 원(총사업비 1천억 원) ▲(나주) 빛가람 어린이 체험센터 조성 10억 원(총사업비 180억 원) ▲(함평) 교통안전 연수원교육센터 건립 용역 1억 원(총사업비 250억 원) ▲(영암)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설계비 1억 원(총사업비 150억원)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2024년도 국고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2025년도 국고 확보에도 정부정책과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비교우위 신규 사업을 조기 발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남 대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에 최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다 국고 확보로 국비 9조 원 시대가 달성되도록 각별한 도움을 주신 서삼 석 국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지

목포시, 2023 전남도 일자리창출부문 평가 대상 수상

청년 취·창업, 신중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등 고용창출에 주력

목포시가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 주관 일자리 창출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의 고용지표, 일자리 예산 증가 및 집행 현황, 청년.신중년.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등 6개 분야 19개항목의 실적을 종합해 선정된다.

목포시는 2023년도 1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2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청년 취.창업(147명), 신중년 일



자리(139명), 취약계층 일자리(30,105명), 사회적기업 육성(33개사), 일자리우수기업 선정(2개사) 지원 등 지역내고용창출 사업에 주력해 왔다.

특히, 신중년의 조기 퇴직과 은퇴 후 노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노 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 퇴직자의 경력을 활용 한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매니저, 중 소기업 기술나눔 매니저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청.장년일자리 지원 취.창업 사 업 추진으로 역량있는 지역 인재들이 목포에서 둥지를 틀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면서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실현해 젊음과 활력이 넘치 는 목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종배/기자

완도군 청년 공동체 일냈다! '2년 연속 수상' 쾌거

'생일초록공방'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유회서 우수상 수상



완도군의 청년 공동체인 '생일 초록공 방' 팀이 지난 20일 열린 전남도 주관 '2023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사 업으로 완도군에서는 8개 팀, 전남에서 는 총 134팀이 활동을 했다.

이날 성과 공유회에는 1차 서류, 2차 발표 평가 등을 통해 각 시군에서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10개 팀이 참가했다.

'생일 초록공방'은 완도군 청년 공동체 (대표 강미희)를 대표해 참가했으며, '생 일'(도) '초록'(자연보호) '공방'(업사이 클링)은 아름다운 생일도의 자연이 깨끗 하게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인 7 명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생일 초록공방'은 그동안 '가고 싶은 섬, 생일도'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리적·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전 연령이 동참할 수 있는 '찾아가는 주민 참여 체험' 활동으로 폐현수 막을 이용한 가방 제작·꾸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일회용 종이컵 사용줄이기를 위한 도자기 컵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등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생일 초록공방' 강미희 대표는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 사례를 공유할 수 있어서 청년 공동체 활동의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에 보탬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완도군은 지난해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노화 오감자' 팀이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생일 초록공방' 수상까지 2년 연속 수상이라 그 의미가 크다.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생일 초록공방 팀의 수상을 축하하며, 앞으로 도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 다"라고 전했다.

양영율/기자

보성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긴급 방역

5가지 핵심 차단방역 수칙 준수 당부

전라남도는 25일 보성군 소재 육용 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출 농장은 육용오리 35일령 1만 3천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사료섭취 및 활력 저하, 폐사 증가 등 으로 농장주가 보성군에 신고했다.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 인됐으며,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 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중이다.

로선임적은무에서 확인중이다. 전남도는 의심축 신고 접수 즉시 해 당 동상에 가숙위생망역시원본부 소동 대응팀 2명을 투입해 출입 통제, 이동 제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전남도 현장 지원관 2명을 현장에 신 속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하고,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으로 설정,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임상예찰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소독차량 13대를 동원해 1일 3회 이상 집중소독도실시하고 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주가 핵심 차단방역 수칙 준수의무를 게을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는 물론 주변 농가에는 예방적살처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농장주 는 5가지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매일 매일 꼼꼼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당 부했다.

이어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 졸음, 녹변 (녹색 설사) 등의 임상증상을 보일 경우에도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25일 기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는 충남 1, 전북 18, 전남 5 등 3개 도의 가금농가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고흥 1, 영암 2, 무안 1, 장흥 1 등 4개 시군에서 5건이 발생했다.



한파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计短行业 坚韧

구례북초등학교 100여 명 대상



구례군청 씨름단, 찾아가는 씨름 교실 재능기부

전남 구례군은 구례군청 씨름단이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구례북초등 학교를 방문해 5~6학년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씨름 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씨름단은 씨름의 역사와 유래, 씨름 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엉덩배지기, 안다리 걸 기 등 기술 시연을 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 을 얻었다.

또한 씨름단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씨름 경기를 체험하며 기술을 익히고 씨름 예절과 스포츠맨십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김순호 군수는 "씨름 교실은 여자씨름의 발상지인 구례군의 학생들이 씨름의 재미 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 회"라며 지속적으로 씨름 교실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례군은 2020년부터 후계 양성 및 씨름 저변 확대를 위해 4년째 씨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연계형 한종목(씨름) 스포츠클럽인 반달곰 씨름 스포츠클럽과 연계해 학생 선수 발굴에 힘쓰고 있다.

김성현/기자



순천시 농산물 판로 다양화, '라이브커머스' 진행

농업인 라이브 방송으로 기획·송출 역량 키워



순천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 일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 바일 홈쇼핑(라이브커머스)을 지원해 비 대면 마케팅 시장 개척에 나섰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을 송 출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 영상과 채팅으 로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

시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년 농업인 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기획부터 영 상촬영, 장비 사용법 등 실습 위주의 교 육을 1년간 운영했으며, 이후 온라인 쇼 핑몰 플랫폼을 활용해 한우·요거트·감말 랭이·블랙베리 분말 등을 농업인이 직접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했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총 시청자수 1,225명, 구매건수 76건, 판매액 200 여 만 원의 성과를 얻었고, 판로개척이 어려운 강소농이나 청년 창업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 해 직접 판매해 보는 좋은 경험이 됐다.

시 관계자는 "영상 콘텐츠가 급증하는 시대에 발맞춰 전자상거래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라이브커머스가 지역 농업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농업인들의 온라인 마케 팅 확대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 한 '온라인 비즈니스관(서면 둔대수계길 28)'을 운영해 농산물 온라인 영상 미디 어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이승준/기자

전북도, 생태환경자산의 브랜드가치 한층 높여

전북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로 도내 첫 세계지질공원 탄생

2023년은 전북도가 보유한 빼어난 생태환경자산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 회복과 탄력을 주는 생태환경 조 성에 큰걸음을 내딛은 한해였다.

◆ 도내 첫 세계지질공원 탄생과 국 가지질공원 신규 인증 획득

지난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서 전북 서해안(고창·부안)의 세계지 질공원 인증(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 라, 도내 첫 번째이자 국내 최초 해안 형 세계지질공원이 탄생했다. 또한 6 월에는 선유도·말도·방축도 등 고군산 군도 일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되는 등 우리 도 서해안 자연·생태경 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전북도는 세계 국가브랜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탐방 프로그램 운영 주민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효과 창출 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익산 왕궁 수질오염과 악취의 근 원지에서 탈피, 생태계 복원전기 마련 또한 익산 왕궁 축사 매입지역이 환 경부 자연환경복원 시범사업에 선정 되어 수질오염과 악취의 근원지에서

탈피하기 위한 생태계 복원의 전기를 추진중인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바탕 으로 자연환경복원 시범사업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아울러 한센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문화와 생태·관광이 어우러지는

◆ 도내 국가생태관광지 3곳으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부터 국내 최초로 시작된 여 각 시군의 우수 생태자원의 보전 과 현명한 활용을 위한 사업들을 체 계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남원'지리산 정령치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생태관 광벨트'가 고창 고인돌 운곡습지, 정 읍 월영습지와 솔티숲에 이은 도내 3 호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연간 약 1억원의 운영 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향후 전북도와 남원시는 약 120억원 규모 의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촌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며, 주민 역량 강화와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생태관광 활성 화 등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 고자 한다.

◆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도

이 밖에도 전북도는 내장산, 다도해 해상, 덕유산, 변산반도, 월출산, 무 등산 등 6개 국립공원을 총괄하는 국 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를 유치하 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환경부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올해 6 월 서부지역본부의 전주 유치가 확정 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임시청사에 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오는 2027년까지 국비 약 200억원을 투 으로 전북도는 서부지역본부와 지역 인재 육성, 기업과 상생 ESG 경영 활 동 지원, 지역 문화 행사 개최 등의 협 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내 자연 유산 보전·활용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이남출/기자

함평군, 원로 정책자문회의 개최

진도군, 제16기

친환경농업인대학 졸업식 개최

유기농업반, 발표식품반, 국화산업연구회반 등 3개

과정…66명 졸업생 배출

2023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 졸업식

26일 전남 함평군은 "미래지역발전 비전사업 등 군정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험과 지혜를 갖춘 역량 있는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함평 군 원로 정책자문 회의를 이날 개최했 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익 함평군수 는 전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지역 언론인 대표, 기업인, 퇴임한 교육인과 금융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 하우를 쌓아 온 지역민 40명을 정책자 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회의에서 지난 9월5일 김영록 도지 사와 이상익 군수가 함께 발표한 함평군 미래지역발전 비전사업에 대한 주요 내 용과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장정진 기획 예산실장이 설명하고,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비전사업과 자문 회의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가 이어졌다.

前 국방부 차관을 지낸 김종천 위원 랜을 듣게 되는 자리여서 군민의 한사람 으로서 기쁘다"고 밝히며, "미래 비전사 업을 추진하면서 군민 소득과 직접적으 로 연계된 사업에 집중하고, 사업 진행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 에 잘 관리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비전사업의 실현 을 위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원로 위원 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혜로운 고견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위원님들의 의견 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새로운 도약 희 망찬 함평 건설의 자양분으로 활용토록

한편, 함평군은 원로 정책자문회의를 정례화해 향후 매분기 1회 개최할 계획

김영진/기자

남원시, 도내 유일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선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앞장

환경부 주관 '2024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444억원 확보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환 경부에서 주관한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444억원을 확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후속 노후 상 수도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상수관로 및 노후 재질관 등 지방상수도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수도관망의 블록화, 유 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누수 저감 은 물론 효율적인 수량관리가 가능하 도록 추진하는 정책이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붉은 수돗물과 녹물사태 등으로 먹는 물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는 20 년 이상된 노후상수관으로 인해 수질 악화 등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금번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어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상황이 녹록치 않 은 상황에서 세수부족, 수도시설의 심 각한 노후화는 타 지자체도 유사한 상 황으로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했으며, 2021년 수립한 후속 노후 상수관 정 비사업 기본계획용역에 남원시 사업 계획의 총사업비가 267억원으로 반 영된 상황이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가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환 경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국 회 등 관련기관의 문턱이 닳도록 방문 했고 이번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을 재차 강조한 결과 용역 결과보다 166% 증가한 177억을 추가 확보해 총 444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선정으로 2029년 성을 저해하는 노후 상수관로 및 노후 재질관 정비 뿐만 아니라, 수돗물 공 급지역을 여러개로 구분하여 수압, 수 질, 수량관리 등이 용이하도록 복잡한 기존 상수도관망체계를 지역별 블록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ICT 기술을 접 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가

가능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 획이다.

시는 "후속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이 마무리되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함께 현재 유 수율 74.6%에서 85%까지 끌어올려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상수도 요금 인 상 억제 효과가 나타나 주민 물 복지

원인 중의 하나인 노후 상수도 시설을 하루 빨리 정비하여 시민들의 기대 수 준에 부응하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 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

이남출/기자

나주시, 남도 먹거리 세계화 앞장 … 道 수출 경진대회 '최우수상

해외 시장 다변화, 글로벌 시장 주요 거점 확보 주력

전라남도 나주시가 남도 먹거리 세 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시는 2023년 전라남도 농수산 식품 수출 우수 시·군 경진대회서 '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전라남도 농식품 유통업무 우 수 시·군 평가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에 이은 쾌거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라남도 농수산식 품 수출 10억불 달성을 위한 도내 시· 군·수출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 축과 수출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 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평가는 시·군별 1~2차 서면 평가 이후 선정된 지자체 6곳을 대상으로 3차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 위를 정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수출시 장 다변화를 통한 농수산식품 세계화 에 앞장선 공로로 첫 경진대회서 최우

화순군은 지난 12월 22일 2024년 바우처(이용권)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 자 15명을 선정했다.

화순군 장애인바우처 택시는 2022 년 8월 3일부터 도입했으며, 2023년 까지 10명의 사업자로 이용자는 1일 4 회, 월 30회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5명을 추가하여 15명 의 사업자가 운영하며, 이용자는 1일 4 회 월 30만 원의 한도금액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서류전형을 거쳐 54 명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직접 추첨하는 형식으로 선정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군 감사관 입회하 에 진행했으며, 그 결과, 최종 법인 택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병태 시장은 '글로벌 시장 주요 거 점 확보'를 목표로 미국, 아랍에미리 트, 베트남 등 현지 유통업체와 지금 까지 1900만불 규모 농수산식품 수 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며 농수 산식품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10월 미국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엑스포 참가를 비롯해 협약 국가 대형마트에서 현지 판촉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오며 나주 농수산 식품 홍보에 공들여왔다.

2018년 이후로 맥이 끊겼던 두바 줬다.

월부터 나주배 수출이 재개됐으며 '배 주스'는 숙취 해소 특효 음료로 각광 받으며 호주에 이어 미국, 영국, 캐나 다 등으로 시장이 확대됐다.

나주시는 수출 유망기업 발굴·지원 을 통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 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재)전남창조 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나주시 우수 농 식품 품평 상담회'를 개최해 지역 식 품기업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올해 첫 개최에도 불구 GS홈쇼핑 농협경제지주·롯데마트·11번가·티몬· Y-MART 등 국내 대형유통사 상품기 획자(MD) 20명이 참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참가 기업들은 1:1 맞춤형 유통 전 문 상담, 상품 컨설팅을 통해 대형 유 통사와 최종 14건의 입점계약을 체결 하는 결실도 이뤄냈다.

윤병태 시장은 "첫 경진대회 최우수 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농 수산식품 생산·가공에 힘써온 농업·기 업인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며 "나주배를 비롯한 지역 농수산식품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 식 품 기업의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 원 폐지 등 열악한 수출 환경 극복을 위한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 나주배 동남아 수출전문단지 육성에 따른 신 규 시장 개척 등 다각적인 수출 활성 화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화순군, 2024년 바우처택시 사업자 선정 완료

시 사업자 5명과 개인택시 사업자 10 명이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택시는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이 목적인 만큼 이용 대 상은 거동이 불편하고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친절과 봉사 정신으 로 사업에 임해 주길" 당부하면서, "이 용자와 담합 하거나, 요금 부정수급 및 민원 유발 시 협약 해지사유가 되니 정 직하고 친절하게 사업 추진을 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날 선정된 바우처택시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 게 되며, 기존 10대에서 15대로 사업 자 대수가 증가한 만큼 화순군 교통약

자 이동 편의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호/기자

진도군이 제16기 친환경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친환경농업인대학은 전문 농업인력 양성과 농업인 소득향상 기여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문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있다.

이번 16기 친환경농업인대학은 지 난 3월부터 10월까지 이론, 실습, 품 평회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6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식과 함께 교육성적과 우수한 참석률로 박신덕씨가 농촌진흥청장 공로상을 수상하고 유기농업반 김강 석씨, 발효식품반 성현주씨. 국화산업

연구반 박경양씨가 각각 진도군수 표 창을 수상했다.

또한 국화산업연구회반 회원들이 국 화판매 수익금 100만원을 (재)진도 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으로 기탁해 기부문화에 동참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어려운 영농환 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친환경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을 수료 한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배움을 발판삼아 지역의 선도 농업 인으로써 다양한 농업소득 창출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영진/기자

경북도『2023년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 성과대회』개최

식품·공중위생관리부문 대상 포항시·칠곡군, 우수지자체 11곳 시상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2023년 식품·공중위생관 리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식품·공중위 생 우수지자체 11개소와 유공자에 대 한 시상을 시작으로 푸드테크의 시대 라는 주제로 K-키친추진위원인 박주 홍 포스텍 교수의 강연, 경상북도 푸 드테크 정책방향 발표와 시군 우수사 례를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시책종합"대상"은 포항시와 칠곡군이 "최우수상"은 경주시와 예 천군, "우수상"은 문경시와 성주군이 수상했으며, 분야별 우수시군은 ▲식 품정책분야 청송군 ▲식품안전분야 영천시 ▲공중위생분야 경산시가, 또 지난해에 비해 혁신적 발전과 도약을 한 구미시와 울진군이 혁신상의 영예

이와 함께 식품공중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8명과 민간인 23명에 게도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가 추진 하는 K-키친프로젝트의 방향성과 비



전을 시군에 제시하고, K-키친모델을 보급해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 등 '외 식산업 대전환'이라는 아젠다로 도-시 군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서 그 의미를 더했다.

대상을 받은 포항시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 450여 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주방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 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외식산업 육성 에 노력한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

군 단위 대상은 안전한 외식환경 조 성을 위해 안심식당 지정에 노력한 칠 곡군에게 돌아갔다. 또 우리동네 명품

먹거리 개발에 노력한 구미시와 전국 체전을 대비해 숙·식 위생향상에 힘쓴 울진군에는 혁신상이 수여됐다.

이날 '푸드테크의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한 포스텍 박주홍 교수는 전 세계 식품시장이 반도체시장을 뛰어넘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며, 푸드 테크산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또 이정아 경북도 식품의약과장은 왜 우리 도가 푸드테크산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 K-키친프로젝트의 방향 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푸드테크가 기후 위기 대응과 신성장 동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산업 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대 전환의 시대에 식품산업도 대전환이 필요하고, K-키친프로젝트는 이미 하 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 성공적인 안 착을 위해서는 도-시군 간 협력과 상 생이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식품부 서가 가진 위생점검·단속의 업무를 뛰 어넘어 외식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 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발족… 상생기금 78억 원 이상 조성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터 조성에 참 여하고 있는 ㈜코렌스이엠과 협력업 체 10개사*가 노사, 원·하청, 지역사 회와 상생하고자 상생협의회와 78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기금을 만든다.

부산시는 27일 '부산형 일자리 클 러스터 상생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 혔다.

발족식은 27일 오후 2시 시청 대 회의실에서 이성 권 부산시 경제부

부산 농심호텔에서 개최 시장과 부산형 일 자리 클러스터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코렌스이엠과 협력업체 10개사 노 사 대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상생협의회는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

터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코렌스이 엠과 협력업체 10개사, 부산시 등이 노사, 원·하청,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됐다.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터는 전기차

핵심부품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서구 국제산업 물류도시 내 조성하고 있는 상생형 클

전기차 핵심부품 생산업체인 ㈜코 렌스이엠과 협력업체 10개가 모두 상 생협약을 체결하고, 클러스터 조성에

이 클러스터에서 앞으로 4천358억 원의 투자와 670여 명의 신규일자리 가 창출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한 ㈜코렌스이엠은 2023년 9월 1 천450억 원을 투자해 3만 평 부지에 공장설립을 완료했으며, 협력업체 10 개사도 현재 투자를 진행 중이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클러스터 조성 을 지원하고 있다.

상생협의회는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 윤근수/기자 터 참여기업 등과의 상생을 위한 기금

운용 등 각종 지원의 주요 협의기구 역할을 하며, ㈜ 코렌스이엠과 협력업 체 노사 대표, 지역 노사민정 대표, 관 련 전문가, 부산시 경제부시장, 부산 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협의체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선출 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아울러, 이날 상생협의회 발족에 따 라 ㈜코렌스이엠과 협력업체는 오는 2028년까지 78억 원 이상의 상생기 금(공동연구개발기금, 공동근로복지 기금, 지역사회공헌기금) 조성에 합 의하고, 이 기금을 클러스터 내 노사, 원·하청,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사용힐 예정이다.

당초 부산형 일자리 클러스터 투자 유치 시 순이익이 발생하면 참여기업 이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해 기 금조성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시

가 기금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컨설 팅하고, ㈜코렌 스이엠과 협력사 도 노사와 지역사 회와의 상생에 뜻

을 함께해 이번

12.29.~30. 이틀간

공동연구개발기금은 3억 원의 고정 기금을 조성하며, 추가로 매년 클러스 터 내 기업이 1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동반 성장하는 기술상 생 모델을 만든다.

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45억 원 규모로 조성해 원·하청 기업 근로자에 다양하고 공평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 원한다.

지역사회공헌기금을 3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해 기업이 속해있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코렌스이엠 3억 원, 협력 업체 2억 원 등 참여기업들이 매년 5

억 원 이상을 출연한다. 아울러, ㈜코렌스이엠은 상생협력 이라는 선도적 의미에서 공동연구개 발기금에 1억 원, 지역사회공헌기금 에 3억 원 등 총 4억 원을 내년 초 출 연할 계획이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 형 일자리 클러스터가 부산 전기차 산 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조전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이번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것" 이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외국인, 이제 책자 하나로 대구를 알 수 있다! 'INSIDE DAEGU

외국인 대상 대구시 영문 소개책자 발간

대구광역시는 외국인들에게 대구라 는 도시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영문 책자 'INSIDE DAEGU'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외국인이 대구가 어떠 한 도시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

들어졌으며 휴대하면서 보기에도 편 한 크기와 두께로 제작해, 총 32쪽 안에 역사, 산업·경제, 관광명소, 먹 거리, 축제, 그리고 자매·우호협력도 시, 유네스코 지정 내용 등을 포함한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담았다.

올해는 먼저 영문 2,000부를 제 작·배부하고, 이어 내년에는 중문과 일문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INSIDE DAEGU는 대구만의 매 력을 안으로부터 들여다본다는 의미 로 외국인들이 이 책자를 통해 대구 의 이모저모를 알아갔으면 한다. 그 리고 나아가 세계 속에 대구가 알려 지는 데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농업기술센터, 2023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선정!



청송군농업기술센터가 경북농업기술 원이 주관한 2023년 농촌진흥사업 도 단위 우수기관 평가에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농촌진흥사업 평가는 경북 22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추진실적, 농촌진흥사업 조직·

예산관리, 전문역량개발실적 등 9개의 지표평가로 이루어 졌으며, 청송군농업 기술센터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좋은 성 적을 거두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은 지난 12월 22일 경상북도 농 업기술원에서 개최된 농업 연구성과 공 유대회에서 도 관계관 및 각 시군 농업 기술센터 소장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 데 이루어졌다.

으로 농촌활력증진 및 삶의 향상이라는 목표로 황금사과 및 새소득작목육성 등 다양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촌지원지원사업에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도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고, 농업 현장 중심의 다양한 농업인 맞춤형 교육 을 통하여 전문 농업인을 양성했다. 또 사과가공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교육을 통하여 청송사과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 했으며, 청송군 실정에 맞는 농기계 임 대사업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 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기도 했다.

발병해충, 외래해충 등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를 통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했 고,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기술보급을 통 한 융복합기술 농가확산 및 첨단농업 체

계를 구축했다. 또한 다축형 사과원 조 성 및 황금사과 재배단지 조성을 통하여 청송사과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청송 황 금사과 육성 및 재배기술연구를 위하여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 진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수상은 농업 기술센터 전 직원들과 청송군 농업인들 이 힘을 합쳐 이뤄낸 노력의 성과"라며, 이끌어갈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빠르게 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뮤지컬} 맘마미아!



2023.12.30~12.31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ABBA의 명곡을 담은 최고의 스테디셀러 뮤지컬 '뮤지컬 맘마미아!' 안동 공연

2023년을 마무리 할 마지막 파티 박스 뮤지컬이다, 1999년 런던 초연 가 시작된다. 안동시와 안동MBC가 주최하고 안동문화예술의전당과 ㈜ 파워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하는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이 12월 30일 토요 일과 31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오후 2시, 7시에 웅부홀에서 총 4회 진행 된다.

뮤지컬 '맘마미아!'는 전설적인 팝

이후 20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으며 2004년 한국에서 초연 한 뒤 한국에서도 19년간 공연한 스 테디셀러 뮤지컬이다.

맘마미아는 지중해 그리스 휴양지를 배경으로 엄마 도나와 딸 소피가 소피 의 아빠를 찾기 위해 도나의 옛 연인 인 세 남자를 초대하는 과정에서 벌어 그룹 ABBA의 히트곡으로 만든 주크 지는 유쾌한 소동을 그린다. '맘마미

아'를 비롯하여 '댄싱 퀸', '땡큐 포 더 뮤직'등의 주옥같은 명곡을 만날 수 있다.

이번 '맘마미아!' 공연은 2007년부 터 16년간 주인공 도나 역을 맡고 있 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을 비롯하여 스 타급 배우들의 초호화 캐스팅으로 만 나볼 수 있어 한층 더 수준 높은 공연 을 기대할 만하다.

윤근수/기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수해 극복 노력 등 다양한 성과 주민 공감 얻어

사업이 호평을 받았으며, 농업대전환

김학동 군수는 "이 성과는 그동안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동력 삼아 묵 묵히 일한 결과이며 내년에도 주민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예천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국비 사업예산 확보

영양군, 2024년도

영양군은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4 년 예산안에서 신규 사업을 비롯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영양군 주 진입로 31번 국도 선형개량 사업(총 사업비 920억 원) 착공비 10억 원, 기 존 화매저수지의 논 위주 급수방식에 서 엽채류 등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급수 방식 변경을 위한 석보 화매지구 논범 용화 용수 공급체계 구축 사업(총 사업 비 146억 원) 기본 조사 예산 3억 원 등 총 13억 원을 국회 증액 예산으로 추가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박형수 국회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누락되어 있던 위 신규 사업 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요 청을 했고 국민의힘 예결위에도 부탁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주요 국비 사업 △마을 상하 수도 정비 등 176억 원, △영양 밤하 늘 청정에코촌 조성 6억 5천만 원, △ 수비면 죽파리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5개 소) 95억 2천만 원, △마을 생활여건 개조 사업 19억 원, △농촌신활력플러 스사업 17억 2천만 원, △석보면 국민 체육센터 3억 원, △스마트 경로당 구 축 3억 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1억 8천만 원, △면 단위 LPG배관망 사업 정금자/기자 14억 원, △영양읍 동부리 농촌공간



정비 사업 12억 원 등의 예산 확보로 주요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 국립시설인 국립멸 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 운영비 9억 3천만 원도 확보하여 지역 주민 환경 교육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2024년 국비 예산에 는 국도 31호선 선형개량 사업 등 '사 통팔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 군민들이 바로 체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반영되어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으로 도약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군민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 지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 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들 은 영양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겠다."라 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예천군은 2023년 한 해 군정을 빛 낸 10대 성과를 발표했다.

군은 올해 추진한 군정 주요성과 중 총 18건의 우수 성과를 후보로 정하 사업 4개 마을 선정이 포함됐다.

고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예천군, 2023년 군정을 빛낸 '10대 성과' 선정

최종 선정된 군정 10대 성과에는 △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및 운영 △집 중호우로 인한 수해 극복 노력 △고향 사랑기부금 목표액 대비 433% 초과 달성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운영 △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 권대회 개최 △'클린예천 보물마차' 운 영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개관 및 운영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 의회 구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와 패밀리파크 등 대규 모 건축공사 완공 후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한 사업들이 많은 성원을 얻었다.

또한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 한 수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고향 사랑기부금의 폭발적인 모금 활동 및 대규모 국제육상경기대회의 성공 개 최 등의 성과도 주민들로부터 큰 지지 를 받았다.

이 밖에도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개 선하기 위한 예천군-안동시 상생 행정 협의회 구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 쓰레기 재활용의 주민 인식을 개선하 는 클린예천 보물마차 운영 등이 선정 돼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다양한 관심

대구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신규 인증 획득

최근 2년 이내 발생한 사고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우수 연구 수행



케이메디허브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가 주관하는 2023년 안전관리 우 수연구실 인증제 심사에서 신규 인증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약 동학평가팀과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센터 전자의료기기평가팀은 창립 이 래 최초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 증을 획득했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인증 취득을 위해선 최근 2년 이내 발생한 사고가 없어야 하며, 또한 전문가 현 장 심사를 통해 안전환경 시스템 (30 점), 안전환경 활동수준 (50점), 안전 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20점) 등 3가 지 분야에서 각각 80% 이상의 점수 를 확보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받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질량분석연구실 은 액체크로마로그래프 텐덤질량분 석기를 이용하여 신약개발후보물질 의 간 대사 안정성 (Microsomal stability), 혈장 안정성 (Plasma stability), 혈장 단백결합 (Plasma protein binding), 간 대사효소 억 제(CYP inhibition), 생체 시료 분 석 등의 약물 대사 및 약동학 평가를 하는 공간으로 고압 가스 및 화학 물

질 등을 취급해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 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약동학평가팀 안전한 실험실 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분야를 비롯 인자분석, 비상조치 계획 및 안전 교 육 등을 적극 수행했다. 또한 연구실 환경 . 보건 관리와 화재 및 가스 . 화 학 . 전기 등 실험실 안전을 최우선으 로 하여 관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 터 레이저 실험실이 우수 연구실로 인 증받았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 증받은 레이저실험실은 전자의료기기 중 레이저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인 허가 시험 및 성능 시험을 하는 공간 으로 레이저 및 고전압, 화학물질 등 을 취급해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가 필

레이저실험실을 사용하는 기업과 연 구원들의 안전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 고, 위험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여 우 수 연구실로 거듭났다.

케이메디허브 양진영 이사장은 "앞 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 으로 향상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확 대하여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선 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4 새해맞이 타종식과 해맞이 영덕으로 오세요

영덕군은 오는 12월 31일 묵은 해 2023년을 떠나보내고 새 희망 을 불러오는'2024 새해맞이 타종 식'행사를 개최한다.

작년 타종식 행사는 온라인 메타 버스 가상공간에서 개최되어 아쉬움 을 남겼지만 올해는 동해안 일출 명 소, 강구 삼사해상공원(영덕군 강구 면 삼사리 185-1)내 경북대종 종 각과 헬기격납고에서 대규모로 개최 할 예정이다.

'2024 새해맞이 타종식'행사는 12월 31일 22시부터 조영구MC의 사회와 팝스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 춰 진성, 김용임, 최유나 등 최고 가 수들이 출연하는 송년음악제로 시작 된다.

가수 공연 후엔 용을 주제로 한 무용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자정 직전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

작되는 타종은 총 90여 명이 9개 조 조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기관. 단체장과 주민 그룹 외에 미리 신청받은 타지 방문 객에게도 타종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 국민의 소망을 담을 예정이다.

당일 울리게 될 경북대종은 1996년 경상북도 개도 100주년 되던 해 조국통일, 민족화합이란 도 민의 큰 뜻을 담아 영덕군에 세워진 웅장한 기념물이다.

통일신라시대 호국의 상징인 성덕 대왕신종을 본떠 만든, 경북에서 단 하나뿐인 종이다.

타종식이 펼쳐질 경북대종 종각 계단에는 갑진년을 상징하는 푸른 용 모양 대형 등이 설치돼 청룡 포 토존으로 운영되고 부대행사로 영 덕군 생활개선회 등 5개 민간 단체 가 부스를 차리고 신년운세는 물론 어묵, 부추전, 떡국, 군밤, 군고구마 등 간식과 따뜻한 차를 제공한다.

새해맞이 타종식을 준비하는 군 관계자는"맑은 바람과 태양의 생명 력 가득한 영덕에서 대한민국의 안 녕을 기원하며 종소리를 널리 울리



고자 한다. 전 군민이 마음을 모아 2024년 새해를 힘차게 열 수 있도 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전

새해맞이 타종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타종식 이후 1월 1일 영덕의 첫 해는 오전 7시34분에 떠오를 것으 로 예측되는데 해맞이는 읍면 단위 에서 자체 행사로 벌어진다.

영해면 대진해수욕장에선 신년 블 루로드 걷기대회와 무료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병곡면 고래불해수 욕장에선 풍물패의 길놀이와 달집태 우기, 떡국 시식 행사가 열릴 예정

장문화/기자



경북주도 농업혁신! 우수 연구성과 10選 선보여

농업연구 우수성과 공유대회, 신품종 개발 등 성과 121건 소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이상기후와 국제정세에 따른 식량 공급의 불안정, 농촌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적 극 대응하고 농업 대전환 기반 연구 로 개발한 최신 연구성과 홍보를 위해 지난 22일 경상북도농업인회관에서 '2023년 농업연구 우수성과 공유대 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대학 교수, 농업인 등 300명이 참석했으며, 2023년 농업 연구 성과 및 10選 발표, 인공 일반지 능(AGI) 시대에 대한 특강과 더불어 그동안 성과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연 구성과 50점도 전시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올 한해 기술주도 농업혁신으로 경북농업 대전환 성공 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해 왔다.

수출·소비 유망 신품종 13품종, K-식품 및 빅블러(Big Blur) 시대 산업 화 기반 기술 44건, 농가현장 애로해 결 실용화 기술 64건 등 121건의 성



과를 거두었다.

주요 성과로'경북 수출 포도 1호 품 광객 맞춤 특산 가공품 개발','기능성 업그레이드 된 재래종 고추 수비초 가 공품','참외 담배가루이 지능형 스마트

포획기','수확량 3배 더 올릴 수 있는 딸기 수직재배 시스템'등 대표 연구성 과 10선을 선보여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과 미래 농업에 필수인 자율주행 농업 기계·로봇 공동 연구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 고도화, 병해충 방제, 수확 로봇 등 협업을 통한 노동 력·비용 절감 기계화 등 현장 중심 실 용기술 개발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 시 대와 새로운 상주 이전 시대에 발맞춰 AI,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농업 확대, 청년농업인 등 미래 농촌 선도 전문인 력 양성, 빅데이터 기반 농업통합정보 기술 제공, 기능성 부가가치 농산업 확산 등 환경극복을 위한 첨단 융복합 기술 강화를 위해 농업테크노파크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농업 경쟁력 제 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농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으로 의 탈바꿈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 운데 올 한해 농업 대전환의 변화를 이끌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많이 도출 됐다"라며,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도 경북농업의 기술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을 주도하고 농사만 잘 지어 도 잘사는 농촌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 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의성군은 20일 경상북도가 주최하 는'2023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 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22개 시군 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표 및 일자리 창출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하고 창의

적인 일자리정책 수행 성과와 노력 도 등 4개 분야 총 12개 항목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 심사를 통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군은 △청년 주거·소통 공간 조성 및 플랫폼 구축 △미래산업 혁신성 장 기반 구축 △일자리 인력수급 미 스매치 해소 등 고용 창출을 위한 끊 임없는 노력으로 지역산업을 기반으 로 관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증

가를 유도하는 등 올해 일자리 목표 대비 105% 실적을 달성한 점을 인 정받았다.

또한,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용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수상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 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 사업으로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

정금자/기자

울진군, 2023년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실시

울진군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 지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관내 초등학 교 11개교 5학년 학생 전원 310명을 대상으로'2023년 울진군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2박3일 간의 합숙형으로 진행된 영 어 체험학습은 실제 상황 중심의 영어 학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영어 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관내의 부족한 영어교육환경 및 공교 들의 영어 스피치 능력 배양 및 학습



동기를 부여했다.

등학생 영어 체험학습'은 지역 학생들

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 극복과 영어 사의 지도 아래, 상황중심의 역할체험 학습, 공동체문화학습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사업으로, 울진 군과 한울원자력본부가 공동 추진함 으로써 대상 학생 전원에게 교육비 전 액을 지원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역 여건 상 학교에서 단순, 반복적인 학습 이 전부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직 회가 제공됨으로써, 지역 학생들 은 초석이 될 것이다"며 "이 밖에 도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지 역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

장문화/기자

문경시보건소 선별진료소,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

무료 PCR 대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계속 지원

문경시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체 계 개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 터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별진료소 종료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중앙사고본부가 발표한 코 로나19 대응체계 개편안에 따른 조치 이며, 신규 양성자 증가 및 겨울철 호 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고려하여 코로 나19 위기 경보 단계는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고 그동안 PCR 검사 건수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운

기존 선별진료소를 이용했던 PCR 검사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 며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 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 실·중환자실 입원환자 ▲혈액암·장기 이식 병동 등에 입원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 시설 입소자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로 한정된다.

그동안 무료 PCR 검사 대상이었던 일반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보호 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필 요시 본인 부담으로 PCR 또는 신속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마 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이 유행하고 있어 개인위생 수칙 준수 를 당부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 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포항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및 바다숲 조성 해수부 공모 사업 선정

조피볼락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매년 8억씩 5년간 40억 투입

포항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바 다 사막화 및 자원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해양수산 부 공모사업 2개 분야에 선정됐다.

포항시는 구룡포읍 삼정리와 석병 리 해역의 암반(일명 우럭바위) 지역 에 조피볼락 자원회복을 위한 '조피 볼락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과 연안 마을어장의 어류 및 패류 자원 등의 회복을 위해 인위적으로 해조류를 조 성하는 '바다숲 조성사업' 등 2개 공 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구룡포읍 해역에 조성하는 산 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이번에 선정된 6개소 중에 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 됐으며, 국비 50%와 지방비 50% 로 매년 8억 원씩 5년간 총 40억 원 이 투자된다.

총면적 167.1ha의 사업 대상지에 산란·은신처와 방류장 및 성육장, 생 태 이동장을 조성해 자원의 정착화와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조피볼락 생태 복원 어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 은 인공어초와 바다숲, 연안바다목장 이 조성된 해역으로 이번 사업 추진 으로 조피볼락 자원회복 효과의 극대 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다숲 조성사업은 호미곶면

강사리와 장기면 모포리에서 구룡포 읍 구평리 구간 등 2개소가 선정됐 으며,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4년간 각 12억 원이 투입, 총 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의 하 나로 바다숲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기 업이 참여하는 '블루카본(탄소중립)' 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새롭게 시행함에 따라 정부와 지역의 대표기 업인 포스코가 각각 50%씩 투자하 는 바다숲 조성사업에 국비 7억 원 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면서, 기존 바 다숲 조성사업에 대해 시비로 투자될 1억6,700만 원을 부담하지 않고 전 액 국비와 기업투자로 사업을 진행할

포항시 관계자는 "1년간 사업 대상 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조사와 사업 계획서 작성 및 발표 등 철저한 준비 와 해당 해역을 접하고 있는 어업인 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해양수산부로 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계

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피볼락 산란·서식징 조성사업과 바다숲 조성사업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연안자원 회복뿐 만 아니라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 응에 있어 민관과 기업이 공동 협력 해 해결방안을 찾는 우수사례를 만들 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부산시·한국공항공사, '2023 항공여행마켓'개최

12.29.~30. 이틀간 부산 농심호텔에서 개최



부산시는 한국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부산 농심 호텔에서 '2023 항공여행마켓'을 개 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할인된 항 공권·여행상품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여행업계와의 원활한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국제선 운항편의 완전 회

올해 4회째며, 행사 운영 시간은 오 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 로 ▲부산발 항공권과 여행상품, 여행

용품을 5~30% 할인된 가격으로 판 매하고 ▲참여 업체별로 선물 제공, 홍보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항공사인 에어부산을 비롯해 제 주항공, 싱가포르항공, 핀에어 등 김 해공항 취항(예정) 4개 항공사와 하 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농심호 텔 등 5개 여행업체가 참여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김해공항 국제선 운 항편을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까지 회복해 연간 항공여객 1천만 명 재달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김해공항 국제노선이 올 해에만 3개(마쓰야마, 달랏, 푸꾸옥) 가 신설됐고, 11월에는 김해공항 부산 부터 폴란드 운수권이 확대(주 3회) 되는 등 여러 항공사에서 부산발 신규 노선 개설을 위한 부정기편 운항을 검 토하고 있어 향후 부산발 항공 네트워 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현우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 은 "김해공항의 국제선 운항편이 계 속 늘어나야 향후 가덕도신공항의 성공 개항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라며, "향후 국토부에'부산 도시 지 정 운수권 증대'를 지속 요청함과 동 시에 국내외 항공사와 노선 개설 협 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 기대 에 부응하는 국제항공노선 네트워크 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김희태/기자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의 농업대전환,'짜릿한 첫 소득배당'

혁신농업타운 1호 지구 문경 영순들녘, 28일 첫 소득배당

농업대전환 첫 결실! 「경북도 혁신 농업타운 1호 사업지구」인 문경지구 (율곡리 일원)에서 참여 농가에 소득 배당이 이뤄졌다.

'첨단화·규모화·기술혁신'을 통한 소 득 배가를 위해 지난 6월 파종된 콩이

공동영농으로 문경 농업대전환을 이 끌고 있는 늘봄영농조합법인은 12월 28일 영순면 율곡리 마을회관에서 이 모작 공동영농에 참여한 농가에게 평 당 3,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총지급 농가 수는 80농가(110ha)이 며 평당 3,000원은 당초 법인이 약 속한 금액이다.

1ha 기준으로 900만원인데, 이는 직접 벼농사를 했을 때 보다 오히려 높은 금액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 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동영농 참여 정도에 따라 별도의 인 건비도 받을 수 있어 실제 소득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날 배당금을 받은 홍기웅(남, 79 세) 농가는 "50년 벼농사를 지었어



부족해 막막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들 녘을 이어받고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 니 고맙지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의식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우여 곡절도 많았고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작황이 부진했지만, 약속과 기대를 저 버려서는 안 된다"며 "반신반의하면 서도 동참해 주고 법인을 믿어 준 참 여농가에 감사하고 소득으로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깊다"고 전했다. 들녘 전체에 대한 배당금은 총 9억

9천8백만원으로 두 차례에 나누어 지 급될 예정이다. 금회에는 소규모 농가 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30 농가를 대 상으로 2억7천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나머지는 콩 판매가 마무리되는 1월 중으로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주주형 공동영농은 참

을 위임하고 법인이 들녘 전체를 책임 경영한다. 영농활동에 참여한 농가에 는 농기계작업 30만원, 일반 농작업 9만원씩 일당으로 지급한다"며 "고령 농들을 고된 농작업에서 원천 해방시

총 110ha의 영순들녘은 기존 벼딘 작시 단지 내 농업생산액은 7억8천만 원에 머물렀으나, 올해 콩 농사를 시 작으로 내년 6월까지 봄감자, 양파가 수확되면 기존에 비해 3배 늘어난 24 억원까지 농업생산액이 증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앞으로 문경 소득모델을 체계화해서 선도모델로 활용하는 힌 편, 지역별 품목별로도 다양하게 소득 이 배가되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금년 초에 '올해 최우선 과제는 농업대전환이다' 미 있는 결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 며 "문경 영순들녘의 사례처럼 농업 농촌의 판을 바꾸어 도내 전역에서 농 업대전환이 이뤄지는 데 최선을 다히 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럼피스킨 위기경보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10월 19일 국내 첫 발생이후 63일만에 종식…

이동제한조치 전면 해제

봉화군은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 국내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의 확산에 따라 전국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이 지난 21일 해제됨에 따라 위 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20일 경북

예천군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며, 전국 럼피스킨 발생농장(107호) 관련 총 66개의 방역대 해제 검사에서 럼피스 킨 의심축이 없고, 항원 검출도 없음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럼피스킨 위기 경보 단계 하향 발표에 따라 이 뤄졌다.

군은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 명령 에 따라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소 사육농가 597호 2만 8천여 두에 취약농장에는 보건소의 협조로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에 대해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농장주변 도로에 축협의 공 동방제단 차량 4대와 군 방역차량 1 대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했다.

럼피스킨은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을 시작으로 11월 20 일 경북 예천군 한우농장을 마지막 으로 전국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107건이 발생해 한우, 젖소, 육우기 6,426두가 살처분된 바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럼피스킨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내년에도 예방백신 일제 접종과 모기·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적으로 방제·소독하는 활동을 이어길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남해군,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

남해군은 내년부터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 자립 기반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아동(보호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매칭금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고 18세 이후 학 자금과 주거비 마련, 기술자격 및 취 업 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 아 동의 가입 연령을 기존 12~17세에 서 0~17세로 확대하고 생계·의료급 여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도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정 아동까지 범위를 넓혔 다. 남해군은 올해 40여 명에게 월평 균 4400만 원의 매칭금 지원을 통해 16명의 자립을 도왔다.

남해군 주민행복과 류기찬 과장은 "취약계층의 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신청은 읍·면 행 정복지센터 및 군청을 방문하거나, 복 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준/기자

'같이 나누는 가치'…영주시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김장나눔



영주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가 지 난 23일 영주시사회적기업공동판매 장(공유플랫폼 3층)에서 '영주시 사 를 열었다.

영주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와 영 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김장나눔행사는 영주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함께 지역의 소외계층 을 돌아보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제기업 대표 및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김장나눔 행사에 사용된 재 료는 모두 영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구성했으며, 김장한 김치 500kg은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7개 소 및 장애인 보호시설, 취약지역 생 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권 역의 취약계층 등에 고루 배분됐다.

조욱래 영주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

회 회장은 "추운 날씨임에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 업들이 모였다"며, "지역과 이웃을 회적경제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는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들로 구성 된 단체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협력 공헌활동 발굴 및 수행 등 지역과 상 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정금자/기자

청송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2월 재능나눔 활동 펼쳐~

청송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최 근 겨울을 맞아 청소년수련관 앞마당 에서 나무 옷입히기 재능나눔 활동을

이번 '함께 나누는 기쁨 - 따뜻한 우 리!!' 재능나눔 활동은 가족과 함께 지 역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가족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밝은 인성 함양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방과후아카데미 대상 아동과 그 가 족 60여 명이 참여해 양말목을 이용한

공예활동으로 30여개의 나무옷을 만 들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들은 "손가락이 아팠지만 추워하는 나 무에게 옷을 입힐 수 있어 좋았다."며, "가족과 함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너 무 좋았다." 등의 소감을 표현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나무에 따뜻 함을 전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이 예쁘 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과 인성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 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시민 불편 초래하는 규제 적극 개선…8건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심의

구미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 최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 법규 관련 규제 개선 과제 8건을 심의.

회의에는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공 책 사유 구체화 △공공시설 내 매점 사

동 위원장인 김호섭 부시장과 이용환 금 오공대 교수 등 위원 9명과 개선 과제 담당 팀장 8명이 참석해 심의 안건에 대 한 현황과 문제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전통시 장 주차장 설치기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를 150미터로 범위 확대 △구미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 귀

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대상자 조건 중 비과세대상자 기준 완화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100만 원 이하는 확약서 제출로 간소화 △주차장 표지판 재질 소재 다양화 등 8건으로 조 례가 개정·시행되면 시민들이 다양한 혜 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섭 부시장은 "기업투자를 저해하 는 킬러 규제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조례 관련 규제도 지속



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 삶의 질 힝 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청도군, 지역경제활성화평가 우수 시군 2년 연속, 최우수상!!



청도군은 지난 22일 경상북도가 주관 하는 '지역경제활성화평가 우수 시군'에

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 를 이루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상 공인·전통시장·공공 물가안정·상품권 판 매 등 2개 분야 16개 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우수시책 발굴 등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발됐다.

군은 전통시장 편의시설 조성 분야 공모에 선정되어 10억 원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무대 비가림시설 . 노후 아케

이드 교체사업 등 시설 현대화사업 추 진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 은 뿐만 아니라 공공배달앱 먹깨비 특 별할인 이벤트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상 권 회복 및 지역물가 안정화에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역 특색에 맞는 로컬맞춤형 외식창업 특성화 프로그램, 청도시장 레 트로페스티벌 '먹거리존', 사회적경제활

성화'쓰담쓰담 가치마켓'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역경제활성화 추 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라며, "지방소 멸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는 다양 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김동현/기자

충남도, "탄소중립경제 실현 중소기업 금융지원"

이에스지(ESG) 경영안정자금 신설…3년간 총 20억 이자지원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 실현 및 고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 기 위해 3년간 총 20억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안정자금을 신설했다.

도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심현 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종배 기 술보증기금 전무이사가 '중소기업 동 행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와 IBK기업은행 및 2개의 보증기관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환경·사회·투명 (ESG) 경영안정자금 신설 및 운영에 힘을 합니다.

기업은행은 3년간 총 1000억원 규 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하고, 동행지원



협약 보증서를 우선해 대출을 실행하 며, 최대 1.0%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원대상은 도가 추천한 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자금지원의 융자대상 중 환경·사회·투명 경영 자가진단을 완료 한 도내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기업은행으로부터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한 단계별 맞춤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충남 스마트팜 생산품 구입(판로지 원) 등 사회공헌활동과 IBK 중소기업 전문 일자리 플랫폼 제공을 통한 구인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0월 탄소 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남은 이번 경영안정자금 신설로, 탄소중립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에 더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관내 수출기업의 인도네시아 판로개척에 불 지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사장 홍태용)은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I Expo 개최한 산업기계전에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밝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업기계전 은 올해 32회를 맞는 동남아시아 최 대 규모의 산업기계분야 비즈니스 (B2B) 전시회로 2023년 산업기계 전에는 31개국 1,371개 업체가 참가 해 약 3만 4천여 명이 방문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진흥원 지원기업 4개사(㈜야긴, 태성후렉시블, ㈜예림도장기, ㈜일성엠텍 및 경상남도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8개사(오알에스코리아(유), 주식회사유성이엔지, 신흥공업㈜, 대명산업기술㈜ ㈜에스피시스템스, ㈜영일, ㈜에이치티테크, ㈜케이에스이피)와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경쟁력강화사업 지원기업 3개사(㈜유나스타, ㈜제일종공, ㈜애드테크)총 15개사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경상남도관은 수출상담 193건, 상 담액 1,387만불, 계약기대 88건 (763만불)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예림도장기(김동수 대표)는 2건 (35만불)의 MOU체결, 태성후렉시 블(심성구 대표)은 2건(55천불)의 MOU체결, ㈜제일종공(김주진 대 표)은 1건(8,550불)의 MOU 체결 하는 등 경남 기업의 경쟁력을 알리 고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기회 가 됐다.

진흥원 담당자는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업기계전 참가를 통해 김해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박형다

한편 진흥원의 수출형 중소기업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베트남 호치민 국제 프리미엄 소비제전에참가한 한울식품(김철범 대표)은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 추진한 수산 식품 수출 브랜드 대전에서 대상(훈격: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최광용/기자

산 .학 .연 각계 전문가 등 에너지위원회 위촉식 및 에너지정책 논의

충청북도는 26일 제9기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는 김명규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신재생·수소·분산에너지·CCUS 등 최근 에너지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환경·인력양성·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5명, 도의회 추천위원 1명과 도청 내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임기 2년(2023. 12. 26.~2025. 12. 25.)동안 충청북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각종 에너지정 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

제9기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 개최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는데, 최근 에너지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와 충북도가 역량을 집중해야할 에너지 정책에 대해 17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검토하기로 했다.

충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대내· 외적으로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 고 이에 대한 발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위원회가 이 역할 을 해주길 부타드린다"며, "수소·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에너지 분야 제조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대전시 기업 유치, 2023년 막바지 총력!

26일 국내 우량기업 9개 사와 1,176억 원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의 기업유치 행보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26일 오후 3시 대전시 청 중회의실에서 국내 우량기업 9개 사와 1,176억 원 규모 투자, 297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협약서에는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동 노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을 비롯 한 LIG정밀기술(취) 천기진 대표, (취) ML소프트 이수희 대표, (취)과학기술 분석센타 이익재 대표, (취)다엔에프신 소재 김현기 대표, (취)바이오니아 김 재하 부사장, (취)오김치 정미경 대표, (취)유뱃 이창규 대표, (취)켐이 김성현 대표, 한국센서연구소(취) 이수민 대표 가 참석했다.

LIG정밀기술(쥐은 국방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전시기, 특수목적용 일체형 컴퓨터, 전원장치와 유도무기, 위성통 신장비 등을 개발 생산하는 방위사업 체로 양산시설 확장에 따라 유성 죽동 사업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 M L 소프트는 기업의 대규모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기 관리 및 통제솔루션을 개발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접 근통제, 단말기 관리 등이 주요 사업 분야이며 유성구 장대산단으로 이전 투자를 결정했다.

㈜ 과학기술분석센타는 고감도 센서기술을 이용한 환경오염 분석 및 모니터링 기술 보유기업이다. 대기·악취수질 분야의 환경오염 측정장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로 꾸준한 연구 및 기술개발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유성 둔곡산단으로 신설투자한다.

(취디엔에프신소재는 기능성 코팅소재 & 나노소재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무기 폴리실라잔 코팅제, 발수·기능성 코팅 소재 등이 주요 제품으로코팅 소재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구 평촌산단으로 이전 투자한다.

(쥐바이오니아는 유전자 기반 '바이오벤처 1호'로서 질병 예방·진단·치료와 생명공학 연구개발(R&D) 바탕의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다. 나노신소재 분야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서구 평촌산단으로 신설 투자한다.

(㈜)오김치는 식품 제조, 가공, 납품 전문업체로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과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받아 배추김치 등 각종 김치류를 제조가공하는 기업으로 대량 주문 생산 필요에 따라 서구 평촌산단으로 이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쥐유뱃은 차별화된 기술로 배터리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배터리 솔루 션 전문기업으로 균일후막전극, 맞춤 형전지, 테스트전지가 주요 사업 분야 이다. 양산시설 확대를 위해 유성지역 개별입지로 이전 투자한다.

R&D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재료 회사인 ㈜켐이는 디스플레이(LCD, OLED, µ-LED) 및 반도체용 감광성 재료 연구와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 공 장 확장 필요에 따라 서구평촌산단에 신설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센서연구소(쥐)는 시스템반도체와 신뢰성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다양한 시료의 시험분석과 가스센서 및 복합센서 IoT형 스마트 센서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센서기술을 높이고 제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대전산단으로 신설 투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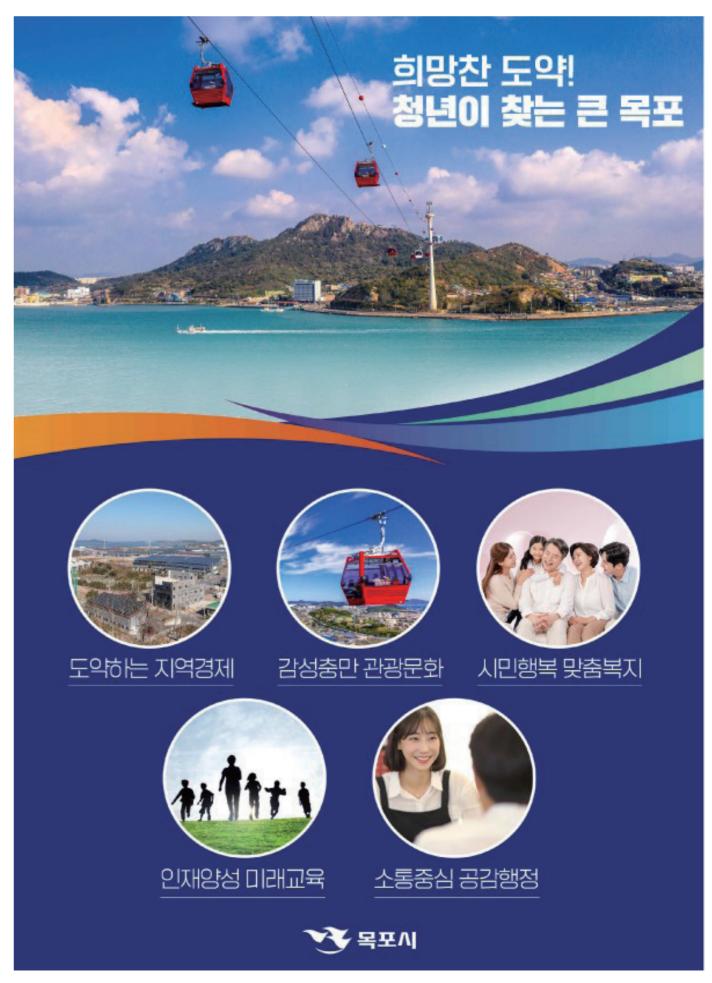
이장우 대전시장은"어려운 국내외경제 상황에도 대전시 투자를 결정해주신 기업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분양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에 조속히 자리 잡고 발전·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9개 기업 대표들도 "이번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업무협약을 계기로 계속 해서 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하기 참 좋은 도시 대 전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여 지역에 양 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이미지 를 제고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민선 8기 들어 대전시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SK온, LIG 넥스원 등 45개 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고용 창출 2,825명, 1조 2,32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

김원호/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수소 저장 · 운송 클러스터 비전선포식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기념 과 미래 수소경제 공급망 완성을 위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비전선포 식」을 12월 27일 강원대학교 삼척캠 퍼스 그린에너지연구관 국제회의실에 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국회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삼척시, 동해시, 강원대학교, 강원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수소기업,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등 총250여 명이 참석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까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과 수소분야 정부 대 표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강원형 미 래수소 비전을 제시한다.

비전선포식에서 동해와 삼척에 미래 수소경제 공급망이 성공적으로 완성 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총 3,177

박경귀 시장 "순국제전, 이순신

도시 아산시만의 문화유산"

미래 수소경제 공급망을 성공적으로 완성한다



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정부 정책방향과 강원특별자치도 추 진계획 및 미래비전을 발표한다.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과 수소국가 비전으로 발표한 '청정수소 생태계 조 성방안'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 략'을 중심으로 핵심기술개발, 수출산 업화,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 수소경제의 생산과 활용분야를 아우르는 '수소 저 장·운송 기술 고도화로 글로벌 수소경 제 선도'를 비전으로 추진전략은 **1** (성장기반) 안전성 최우선 수소산업 기반 확보, **2**(검증기반) 차세대 저 장·운송기술 확보, ❸(적용·확산) 미 래 수소경제 공급망의 경제성·안전성· 효율성 확보를 통해 범국가적 전주기 수소경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3대 핵심 사업으로 수소산업을 설정하고 미래 강원 2032 발전전략에서 5대 첨단 산업 클러스터 중 동해·삼척지역에 '친환경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수소 저장·운송과 액화수소기반 밸류체인 을 특화하여 도정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이번 비전선 포식을 통해 올해 출범한 특별한 강원 에서, 특화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시작하겠 다는 강력한 추진의지를 선포하고, 기 업유치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의 성공적 이행으로 대한민국 미래 수소경제 공급망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아산시, 첫 이순신 순국제전 '만족도 80%' 호평

아산시가 '이순신의 도시'의 완성을 위해 처음 개최한 '아트밸리 아산 제1 회 이순신 순국제전'이 만족도 80점 을 얻으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아산시와 (재)아산문화재단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순신 순국제전 성 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간 열린 '이순신 순국제전'은 온양온 천역, 온양민속박물관, 현충사 등에서 대규모 장례행렬, 이봉근 명창 '성웅 충무공 이순신가' 판소리공연, 국가무 형문화재 제1회 종묘제례악 보존회의 '충무공 현충 제례악', 인문학콘서트 '이별이 아닌 만남, 죽음' 등이 진행됐

이날 용역 연구진(바우플래닝, 을지 대 산학협력단)은 '이순신 장례 문화 축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 개요와 축제 성과와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으며, 박경귀 시장 등 참석자들 과 함께 향후 발전 계획을 논의했다. 분석 결과 행사 기간 방문객은 2 만1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또 '인 간 이순신' 도시브랜드 정체성 확립, 700여 명의 대규모 장례행렬을 안전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한 점, 왕 실 버금가는 이순신 예장 재연, 철저 한 고증 및 시민들의 호응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 도 조사(12월 11~19일)에서는 '지 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뜻깊 은 행사였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80%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재참여 및 추천 의향'을 묻는 항목에도 84%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다만 보완할 과제도 제시됐다. 현대 기술을 활용한 발인발차 상여소리 음향설치, 상여 이동 바퀴 실험 및 검증, 기후 고려한 축제 기간 조정(11월 초) 필요, 지속적인 축제를 위한 별도의

장비 보관소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박경귀 시장은 "이순신 장군이 영면 한 아산시가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하



고 창작의 노력을 다한 결과 이번 순 국제전은 '새로운 이순신의 도시'로 거듭나는 성공적인 호응을 얻었다"며 "전통 장례를 복원하고 계승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성공적이었지만 세심하게 보면 개선할 점도 많이 발견됐다" 면서 "이번 보고회에서 개진된 다양 한 의견들을 향후 적극 반영해 '인간 이순신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축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제1회 축제임에도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 서 "이순신 장군 순국의 의미를 되새 기고 각자의 그리운 사람들을 뜨겁게 불러본 잊지 못할 추억이 됐길 바란 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태백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화 투어



태백시는 지난 26일 상장중학교 다복너래 체육관에서 2024 강원 동 계청소년올림픽 성화 투어 행사를 개 최했다고 밝혔다. 2024 강원 농계정소년올리픽 대회 성화는 이상호 태백시장, 심재성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영민 상장중학교 학생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화램 프 입장 및 안치를 시작으로, 바이애슬론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황지중학교 1학년 김예지 학생과 육상 장거리 대회에서 3위 전적을 가진 상장중학교 2학년 어효준 학생과 상장중학교 학생회장 이정현 학생 등 3명의 학생이 체육관내에서 성화봉을 순차적으로 다음 점화자에 전달 후성화로 주변에 도열하여 점화를 완료했다.

행사장에는 2018 평창기념재단 올 림픽 사업인 동계스포츠 체험존 이벤 트가 마련됐고, 점화식 이후에도 동 계올림픽 관련 OX 퀴즈, 대회 마스코 트인 뭉초 굿즈 제작과 기념품 받기, 문화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축제

이상호 태백시장은 "스포츠의 도시 이자 겨울특별시 태백에서 2024 강 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 최를 염원하는 성화 투어 행사를 개 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라며, "세계가 하나 되어 함께 빛나는 축제 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원주시, 1,000만 관광객 시대 견인할 대표 핫플레이스 소금산 그랜드밸리 조성에 박차

원주시는 1,000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할 원주 대표 관광지 '소금산 그 랜드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찾아온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76% 수준까지 회복됐으며, 이 중에서 90% 이상의 관관객이 외 부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찾 는 관광객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시는 이 기세를 몰아 내년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완성해 1,000만 관광 객 시대를 맞이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지난 11월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교량구조공학회에서 우수상을 수 상한 울렁다리의 종점부 광장 조성을 내년 1월 중에 조속히 완료하고, 광장 내 조형물을 설치해 울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과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들이 울렁다리를 건넌 후 편안하게 내려오면서 스릴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전국 최초·최고· 최장 산악용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에스컬레이터는 현재 92%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운영 예정이다.

초속 5m의 속도로 탑승장에서 출 렁다리까지 972m 구간을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케이블카는 10인승 캐빈 22대로 운영되며,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원주시는 케이블카 탑승장과 첨단 그린스마트센터(ICT전시관), 내수면 생태전시관(수족관) 등으로 구성된 통합건축물을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 여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완성시킨다 는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 대표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 조성으로 원주만의 특색있고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강화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전했다.

- 근ᆻ기: 김정환/기



천안시, 인구 100만 도시 준비··· 신교통수단 도입 공청회 개최

전문가 등 무가선 저상트램 제안…교통약자 접근 유리, 경제성 등 꼽아



인구 100만 도시를 준비하기 위해 신교통수단 도입을 검토 중인 천 안시가 전문가와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천안시는 26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 ^{최해다}

이번 공청회는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다수의 도시개발 사업 등 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 됨에 따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차세대 친환경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공청회에는 경호엔지니어링 김중 현 상무의 '천안시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안정화 박사 의'신교통수단 트램, 그 가능성을 묻 다'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과 질의, 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중현 상무는 통행시간 신뢰성 확보, 대중교통 통행접근성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신교통수단 필요성을 제시했다.

천안시에 적합한 신교통수단 차량시 스템으로 무가선 저상트램을 제안했 다. 이용객, 교통약자의 접근이 유리 하고 노면 활용이 가능하며 경제성을 이유로 꼽았다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을 제시하고 그중 제1노선을 최적의 노선으로 제안했다. 4개 노선은 ▲제1노선 총연장 11.8km KTX천안 아산역~천안시청(종합운동장)~봉서산~천안역~종합터미널~단국대병원▲제2노선 총연장 7.5km 제3산업단지~두정도서관~종합터미널 ▲제3노선 총연장 15.5km 종합터미널~천안역~독립기념관~천안예술의전당 ▲제4노선 총연장 20.2km 종합터미널~천안역~천안역~천안이산역~천안시청~두정

도서관이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안정화 박사 는 트램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대중교통 수단간 명확한 위계를 설정하고 기존 도로 잠식문제를 해결해야하며, 종합적 버스 노선 개편이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2024년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차량시스템, 노선안 등에 대한 사업비와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후 '충청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눈높이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인구 100만명에 대비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서 발간

충북 유학의 학맥과 학풍과 충북독립운동사 발간

충북도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의 일 환으로 두 권의 역사서를 발간했다.

충북 유학의 학맥과 학풍과 충북독립운동사(애국계몽운동과 1910년 대 독립운동)로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충북의 유교문화를 정리하고 일제 강점기 선열들의 애국계몽운동과 자

충북역사문화총서의 두 번째 발간물 인 충북 유학의 학맥과 학풍은 김의환 충북대 교수를 비롯하여 11명의 전문 집필진이 참여하여 조선시대 충북 유학 의 전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를 통해 당시 충북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 고 다양한 학맥과 학풍이 존재했음을

대표적으로 충주는 한강 물줄기를 따라 서울을 오가기 쉽고 상품화폐 경 제의 발달로 개방적 학풍이 존재했음 을 밝혔고, 보은의 성운 학맥은 영남 지역 이황의 퇴계학파와 조식의 남명 학파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을 새 롭게 조명했다.

충북독립운동사(애국계몽운동편)은 이미 발간한 의병항쟁편을 잇는 작업 으로 박걸순 충북대학교 교수를 비롯 한 독립운동 전문 연구자가 집필에 참 여하여 도서의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작업에서는 기존의 독립 운동 연구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고령신씨 문중학교인 문동학교·덕 남사숙이 각각 1901년과 1903년 설립됐다는 기존 주장이 아무런 검증없이 학계에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료 검증을 통해 문동학교는 1908년 7월경, 덕남사숙은 문동학원의 후신으로 1914년에 개교한 것을 밝혀내었다.

평산신씨 문중학교인 보명학교는 신 팔균 장군이 설립주체로 인식되고 있 었으나, 신팔균의 동생 필균과 일가인 재균이 설립했으며, 이후 신팔균이 낙 향했던 1910~1915년 동안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국외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이회영 선생 일가의 자금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학계의 정설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이상설 선생의 자금 제공도 일정 부분이 있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의 유교문화의 전개 양상과 독립운동을 통해 선조들의 업적을 재확인했으며, 지역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4년도에도 지역 역사를 정립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도서는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각 500부를 발간하여 지역 도서관과 유관기관에만 배포할 계획이며, 충북문화유산디지털아카이브에서 전자파일을 무료로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정화/기자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새해에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 중 발굴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 여할 5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한다.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이 취·창업 지 원에 집중되어 가족돌봄청년처럼 갑 작스런 돌봄으로 인해 생계 부담 상황 에 직면한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열악한 가 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 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 가구 150가구 내외를 선정하여 안심 소득을 지원한다.

또한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 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350 가구 내외로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 원한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 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 래복지제도이다.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참여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 가구를 선정하여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지원하며,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500가구 모집… 1월 2일부터 접수

지원가구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개인 삶의 질 변화 등 정성적 연구 추진

2023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 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하여 1,100가구를 선정, 2023 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더불어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가 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5,111가구(지원집단 1,584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대 상으로 2026년까지 매 6개월 단위 로 중간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12월 20일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 럼'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 여가구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새로이 추진하는 안심소 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 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 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 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 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2024년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현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 돌봄청(소)년 및 비수급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① 가 족돌봄청(소)년은 서울시 가족돌봄청 (소)년 확인 체크리스트 적용, ② 저 소득 위기가구는 '2023 긴급복지지 원사업 안내' 위기상황별 요건을 적용 하여 모집부문별 신청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 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운영된다. 모집 첫날(1 월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모 집기간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 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마지막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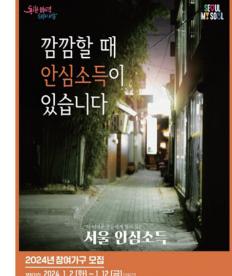
모집 기간 첫 2일간은 시스템 과부 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 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구 선정방법은 신청자들을 통 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 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가구 중 '최 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 되는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예비가 구로 무작위 추출한다.

예비선정된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사 업참여 신청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실 시하고, 선정심의회를 통해 가구 확정 후 무작위 추출로 최종 500가구를 선 정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 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 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

한편, 안심소득 1, 2단계 시범사업 이 6개월 주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분석하 는 양적 연구를 하는데 반해 '가족돌

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는 비 교집단 없이 지원가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심소득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 삶의 질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지 정성적 연구를 실시한다.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가구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여 양적 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비슷한 사례들을 유형화 함 으로써 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공 및 해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지원집단의 전반적인 생활상 고용 및 일자리 경험의 맥락에서 현 재의 근로상황에 대한 파악, 구직횔 동에 대한 경험과 느낌, 향후 계획 등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중점 연구 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여 러 가지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으 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 생한다. 이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 리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마 련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2024년에 새로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인 심소득 시범사업이 소외된 가구에 희 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청주시, 눈썰매장 등 다중밀집시설의 적설취약구조물 안전점검 실시

민·관 합동점검을 통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청주시는 12월 25일부터 2024 년 1월 4일까지 눈썰매장 등 다중 밀집시설의 적설 취약구조물 안전점 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상당구 지북동 농업기 술센터 안에 조성한 눈썰매장에서 보행통로 지붕 무너짐 한 데 따른 조치이다.

중인 낭추골썰매장, 마부농원 내 썰매장, 한국잠사박물관 눈썰매장 3개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 시했다.

화재,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시

설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시는 관내 눈썰매장, 관광숙 박시설의 강당, 축제·행사장 등 다 골구조물, 아치판넬 상으로 구청, 읍면동 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 25일 시는 민관합동 점검반 6 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경 각심을 가지고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적설 취약구조물은 물론, 겨울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자경위, 어린이와 여성들의 안전위한 협력 방안 논의

위원회, 시-경찰청-교육청과 실무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개최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인천시, 남동 구청,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어린이, 여성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 관 간 협력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2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 용 활성화 방안 등 기관 간 협의 사항 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 검토 요청 ▲어 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 설 치 요청 ▲ 논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대책 요청 ▲여성 1인 점포 안심서비 스 추진 등 총 4개 안건으로, 인천시, 남동구청, 경찰청, 교육청에서 참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과 협력 기관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 간 협의추진 내용으로는 2021년 10월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부 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적 주정차 허용 활성화 및 가이드라인 보완 요구에 ▲경찰청에서는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은 개별 장소 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현장점검 을 통한 협의 후, 교통안전심의회 심 의 사안으로 가이드 라인을 통한 세부 사항 지정은 부적합하지만 가결률을 높이기 위한 협의 노력은 지속 추진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환 경을 조성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설 치 확대와 관련해 ▲인천시는 통행량 많은 곳, 사고 다발 지역을 우선적으 로 순차 확대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논현초 학교 통학로 개선 관련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대기 및 횡단시간 조정 및 이설요구에 대해 ▲인천시는 2024년 사업으로 논현 초 주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 예정이며, ▲경찰청에서는 논현 연동되는 신호로 대기시간 축소는 어 렵지만 횡단시간은 5초 연장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남동구는 횡단보 도 이설 협의는 관할 경찰서, 이설에 따른 보행자 보호펜스 및 지장물 이 설, 경계석 시공 등은 도로과, 공원녹 지과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보안 취약한 여성 1인 점포 안심서비스 사업추진과 관련해 여성 1인 점포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 르면 경찰 즉시 출동요구 및 신고 시 관제센터에서 폐쇄회로(CC)TV 모 니터링을 통해 출동하는 경찰에게 정 보 제공요구에 ▲인천시는 현재 경찰 이 영상자료 협조 요청 시 점포 인근 폐쇄회로(CC)TV를 검색해 영상정보 제공 가능하다고 했으며, ▲경찰청에 서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비상 벨을 포함해 112신고 등 신속하게 즉

반병욱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장은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감사드리 며, 합의된 안건에 기관별 성실하게 이행해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김종남/기자

의정부시, 2023년 폐수배출시설 위반행위 15건 적발

보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배출허용기준

의정부시는 폐수배출시설 87개소 준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했다.

초과 5건 ▲운영일지 관련 6건 ▲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2건 ▲변 경 신고 미이행 2건으로 위반 사업 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을 내렸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지속해 서 폐수배출시설을 지도 및 단속을 통해 공공수역의 물 환경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 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 경상북도

75분의 등 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산업안전 경북을 위하여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조치 철저



메임위험 방지

건설기계 등 설비 수리·점검 시 운전정지 등 안전조치 철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철저



부산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성료

관내 초·중학교 37교서 1,540여 명 학생 참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1월 25일부터 한 달간 관내 초·중학 교 37교 1,540여 명이 참가한 가운 데 열린 '자기개발시기 교육장배 학 교스포츠클럽대회'를 성황리에 마쳤

북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학교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드민턴·피 구·배구·축구 등 4개 종목으로 대회 를 운영했다. 대회는 종목별로 주무 학교를 정해 대진 추첨, 경기 방법 등 을 정하게 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진

26일 종목별 결과를 발표하며, 1.2.공동 3위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

특히, 올해는 학교별 스포츠클럽과 '아침체인지(體仁智)'를 연계해 학생 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이는 그 동안 위축됐던 학교 간·권역별·마을 단위 스포츠 리그 등 학교 간 교류전

김범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체육활동이 학생 들의 신체·정신·심리적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과 아침체인지 (體仁智) 연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경북교육청, 2023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다수상

최우수상 2점, 장려상 1점 수상, 전국의 자랑거리로 선정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환 경보호원이 주관한 '2023년 학교급 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2 점과 장려상 1점을 수상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례가 선정됐다고 26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은 교육부 에서 2015년부터 유치원.학교와 교 육(지원)청의 급식 운영과 정책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건강한 급 식 제공과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추 진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 최우수 상 2편(경북교육청, 관호초)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 2편(경북교육청, 구 미봉곡초)과 (청도)동산초가 장려상 1 편을 수상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

이번 공모전에서 전국 총 60여 점 가 융합하여 '경북 학생건강 한마당'



이 응모해 최종 14점이 부총리 겸 교 육부장관상에 받았으며, 그중 3점을

경북교육청은 급식.체육.보건 부서

행사를 운영해 융합 교육 추진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미봉곡초는 식생활 교육을 주제로 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개인과 집 단 영양상담"이라는 영양불균형 문제

개선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동산초(청도)는 "학생 동아리 활동 으로 다양한 체험과 진로 교육"이라 는 우수사례 발표로 장려상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14편의 우수사례는 사 례발표와 영상 제작 등을 통해 17개

한편, 경북교육청의 '경북 학생건강 급식 정책모니터단과 시도교육청 급 식 업무 담당자 온라인연수에서 우수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학 교급식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큰 노력 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이번에 좋 은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앞으로 더 위생적이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위생과 영양 관리에 모든 지원을 아끼 지 않으며, 많은 우수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더 큰 노력과 관심을 부탁한

경북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임금)협약 체결

경북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과 교 육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지난 21일 전북교육청에서 '2023년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학비연대는 올해 9월부터 본교섭 2회와 실무교섭 11회 등 13차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 에 최종 합의했다.

교육공무직원 공통 임금체계는 △영양

사·교육복지사 등 1유형 △교무행정사·조 리원 등 2유형으로 나누며, 이외에 △영 어 회화 전문 강사 등 강사 직종은 공통 임 금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유형 외 직종으

임금 협약 체결에 따라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종과 특수 운영 직군의 기본급 은 3.5%가 인상된 월 1,986,000원(2유 형), 명절휴가비는 기존 연 16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연 170만 원이다.

또한 근속 수당의 근속 상한을 22년으로 1년 확대하고 위험 근무수당을 받는 영양사 에게 기존 위험 근무수당을 통합한 급식 운 영 수당을 월 10만 원 신설했다.

특히 고령 친화 직종인 특수운영 직군은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처우개선에 박차를 가

강사 직종인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가 족수당을 신설하고, 초등스포츠 강사는 기본급 월 78,000원 인상과 근속 수당

협약 체결에 따라 학비연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임상심리사를 1유형 편입을 신청하면 1유형으로 전환할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앞으로도 교육공 무직원의 임금과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상 호 존중하는 교섭문화 안착에도 노력하겠 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교육기부금 전달받아

난치병 앓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 64명에 1억 4천만 원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2월 26일 오 후 4시 교육감실에서 부산사회복지공 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날개 달기' 난 치병 학생 돕기 교육기부금 1억 4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은 하윤수 교육감과 최 금식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열렸다.

부산시교육청은 전달받은 교육기부 금을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가 정의 학생 64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난치병 학생 돕기 '사랑의 으로 선정된 명륜초·센텀초·해강초 등 3교에 표창을 수여했다. 더불어 살아 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나눔 문화 확 산을 위해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난치 병 학생들의 치료를 위해 매년 힘써 주시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깊 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교 육청도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부산교육 청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난치 병 학생 돕기 '사랑의 날개 달기' 캠페 인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 난치병 학생 1,307명 에게 35억 7,470만 원을 지원했다.



세종시 학생 국회의장상, 교육부장관상 등 수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1월 4일 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서강대학 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4회 청소 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서 세종시 학 생들이 국회의장상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최우수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로 열네 번째 대회인 이번 행사 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 정책을 제안하는 대회로서, 올해는 전 국에서 49개 모둠, 258명의 청소년 이 참여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열띤 대회가 치러졌다.

세종 두루중학교 '올약올약'팀은 '폐 을 지킵니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세종시교육청, 제14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 최우수 성적 거두다!

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처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높이 평가되어 국회의장상을 수상하는 영 예를 안았다.

이어,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현상 의약품의 올바른 처리, 당신의 건강 해결 방법을 제안한 해밀고등학교 '슈퍼시니어팀'과 청소년 주민자치

'우.직.해.(우리가 직접 해결해)'팀 이 정책 제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각각 교육부장관상과 교육감상을 수 상했다.

이로써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 중 3개 팀의 세종 학생들이 최상위 수상 을 차지하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가

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단 두 명에게 수여되는 지도 교사상도 두루중학교 정지영 교사와 해밀고등학교 김영진 교사가 수상하 는 영광을 차지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그간 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좋은 결실을 본 결과이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 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세종의 학생들과 선생 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의 마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매년 학생들 의 민주시민의식을 이끌고 주변 사회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탐구하여 이 를 공공정책으로까지 제안하는 학생사



영등포구, 구민 안전 총력 다해…구 소유 석면 건축물 정비 완료

18년~23년 구 소유 석면 건축물 총 23개소, 석면 해체ㆍ제거 완료

영등포구가 최근 대림3동 주민센터 를 마지막으로 구 소유 건축물 총 23 개소의 석면 해체·제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석면은 광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섬유 모양의 규산염 광물류이다. 세계 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석 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석면 건축물은 이러한 석면 자재가 사 용된 총면적 50m² 이상인 공공 건축 물, 다중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이에 구는 석면으로부터 구민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구 소유 석면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했다.

구는 2018년 2개소, 2019년 12 개소, 2020년 7개소, 2021년 1개 소에 이어, 2023년 대림3동 주민센



터 1개소를 마지막으로 총 23개소(구 청사,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의 석면 해체·제거를 모두 마쳤다.

해체 작업은 '석면 안전 관리법'에 따라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 이 50m² 이상인 공공 건축물을 대상

으로 전문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다. 500m² 이상인 경우는 석면 비산 농 도를 측정하고, 800m² 이상인 경우 는 석면 해체 작업 시 감리인 지정 등

구는 구 소유 석면 건축물뿐만 아니

라 민간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 해체·제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안전 관리 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17 년 172개소였던 석면 건축물이 현재 84개소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석면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 면농도 측정 ▲안전 관리인 교육 이수 ▲관리대장 작성 ▲석면 건축 자재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행정지도 등 을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구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석면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등 석면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올해 구 소 유 석면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를 마 무리해 일상 속 구민 안전을 한층 강화 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각 종 유해 물질로부터 구민 피해를 최소 화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혁 강남구의원,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정책간담회'개최

강남구의회가 주최하고 우종혁 의원 이 주관한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정책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남구의 교육정책이 전국적으로 교육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만큼 이 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2028 년 수능 전면 개편에 대비하여 민 루어졌다.

기조강연으로는 김선규 서울고 교 사, 주제토론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전대근 교육정책 칼럼니스트, 임순현 하늘교육 대표 등이 참여했 다. 토론에 나선 참여자들은 고교학 점제와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발 표를 한 후 학부모들과의 질의응답

김선규 교사는 "고교학점제 전면실 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을 맡은 이도희 의원은 "지자체 차원의 고교학점제 대 응방안 모색"에 대해 전대근 칼럼니 스트는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가 입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임순현 대표는 "고교학점제 제대로 알 고, 바르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 각각

토론자로 나선 이도희 의원은 "고교 학점제 전면도입에 따른 학부모의 불 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하며 "강남인강과 같은 지자체의 준비해야한다"고 목소리 높혔다.

좌장을 맡은 우종혁 의원은 "고교학 점제의 전면적 적용 및 대입 수능 전 면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 루어졌다"며"이러한 내용은 향후 학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데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부 터 향후 전공과 진로을 확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며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유명무실한 제 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지자체 차원 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학교 관계자, 학 부모 등이 현장 방청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정동희/기자

🌀 영양군

www.yyg.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성북지점 온누리상품권 4백만 원 기탁

추운 겨울 따뜻한 온정의 나눔을 전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

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성북지점 에서 취약계층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400만원 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길음2동에 소재한 국민체육진흥공 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성북지점에서는 치솟은 물가로 인해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들이 느낄 부담을 덜어주고, 유난 히 추운 겨울 온정의 나눔을 실천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

서울 성북구가 지난 15일 국민체육 로 온누리상품권 400만 원어치를 전

김미숙 지점장은 "올겨울 온누리상 품권을 지원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 환원을 통해 지역과 상생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속적 으로 기부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을 해주시는 경주사업총괄

본부 성북지점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 부를 통해 날씨는 춥지만 주민들의 마 음은 따뜻해졌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도 민관이 협력해 사회적으로 소외되 는 이웃이 없도록 돌봄공동체가 조성 되고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 다"라고 전했다.

경주사업총괄본부 성북지점은 그동 안 소외계층 소화기 지원, 어르신 행 복나들이 지원, 복지관 봉사, 환경캠 페인, 무료 노래교실 등 지역사회 나 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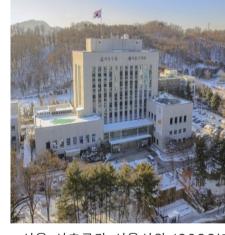
한편 온누리상품권 400만 원어치 는 길음2동 저소득 취약계층에 따뜻 한 겨울나기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강성원/기자



서초구, 8년 연속 '하수악취 저감 우수구' 선정... 악취 없는 도시 인정받아

구민 교육 등 하수악취 근본 원인 제거 노력 및 현장점검 실적 등 높은 평가 받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가' 에서 우수구에 선정됐다.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자치구 평 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는 정화조 및 하수관의 악취를 줄 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 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추진한 ▲정화조 내 악취저 감시설 설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 설 관리·점검 ▲악취저감 홍보 등 총 7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으로 8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실시한 '민간 건물 내 정 화조 관리인 대상 교육'과 같이 단순 지도·단속행정의 틀에서 벗어난 구민 교육 사업 등 하수 악취의 근본 원인 해소를 위한 구의 노력이 심사위원들

또한 구는 정화조 등 하수 악취 방 지와 안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정화조 42곳 및 그 외 개인하수처리 시설 42곳 대상 특별 현장점검 ▲하 수악취 전문가와 함께 악취민원 다수 발생구역에 대한 집중조사 등을 실시

향후 구는 1,000인조 이상 자연유 하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 원하는 등 하수 악취 저감을 위한 다 양한 방안을 모색해 악취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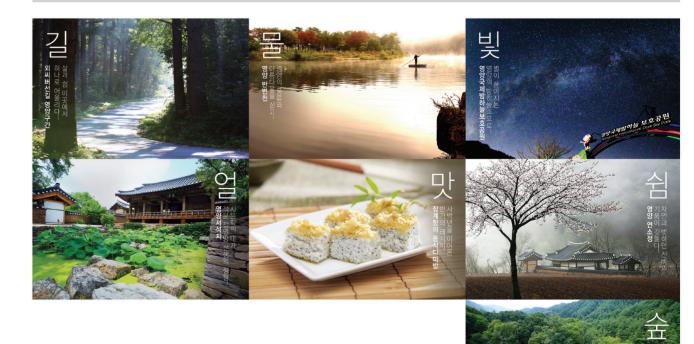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구 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 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악취 제로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うらにになり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됐나요?" 서울 중구가 도와드려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 다면 입학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지 등 양육자의 고민도 커지게 마련이 다. 서울 중구가 이런 학부모의 걱정 을 덜어주기 위해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먼저 구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들 려주는'입학 전 꼭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 강의를 열어 학부모들의 궁금증 을 시원하게 해소해 준다. 강의는 1월 20일 오후 1시 중구 교육지원센터에

엄마 아빠가 강의를 듣는 동안 예비 초등학생들은 '요리하는 마술쇼'공 연을 관람하면서 학교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규칙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아이들은 딱딱한 수업이 아닌 흥미로 운 무대를 통해 학교생활을 간접 체

중구 교육지원센터 지하 1층에는 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들어선다. 응원존 에서는 언니 오빠들이 입학을 앞둔 동생들에게 남긴 축하와 격려의 글도 읽어볼 수 있다.

가족이 함께 꽃 풍선을 만들고 풍선 위에 '잘 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아 빠 감사합니다' 등 서로에게 힘을 주 는 문구를 적으면서 가족 간 돈독한 정을 쌓을 수 있는 행사도 내년 2월 3일 11시에 열린다.

입학 준비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 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면 중구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

고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더 넓은 세상 으로 나가는 예비 초등학생들을 응원

한다"라며, "중구가 준비한 입학 지 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학교에 적응하는 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